北韓 政權形成期와 政權草創期의 北韓과 蘇聯의 關係—北韓과 蘇聯의 相對方에 대한 相互認識을 中心으로(Ⅰ)—*

金 學 俊**

Ⅰ. 머리말
Ⅱ. 소련의 「북한 해방」에 대한 북한의 인식
1. 『해방후 조선』에 나타난 소련에 대한 북한의 인식
2. 정치 지도자들의 연설에 나타난 북한의 소련 인식
〈부록 1〉 소련점령군 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문 1호
〈부록 2〉 1949년의 조쏘협정에 대한 『해방 후 조선』의 평가
〈부록 3〉 북조선인민회의 제1차 회의 제2일에서 채택된 「쏘련군대 탄생 29주년 기념일 축하문」
〈부록 4〉 소련점령군 사령관이 북조선 도시군 인민위원회 대회 제1일에 보내는 축하문
〈부록 5〉 김일성, 「조쏘 량국간의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1주년에 제하여」
〈부록 6〉 조쏘문화협회 함흥지부 편찬, 『해방 후의 조선 : 쏘련 신문 논설집』, 함흥, 1946년 8월 10일
〈부록 7〉 「북조선에 진주한 한 붉은 병사의 인상수기」
〈부록 8〉 브·쓰물렌쓰끼, 「조선임시인민정부의 창설에 대한 문제에 관하여」
〈부록 9〉 브·쓰물렌쓰끼, 「북조선의 정세」
〈부록 10〉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조선문제에 관한 결정 경위」
〈부록 11〉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 결정 제14호 : 북조선 지역에서 철거하는 쏘련군 환송 조직에 관한 결정서」
〈부록 12〉 해방 2주년기념 평양특별시민 경축대회에서의 꼬로뜨꼬브 축사
〈부록 13〉 8·15해방 2주년기념 평양특별시민 경축대회에서의 북조선 주둔 쏘련군 대표 로마넨꼬소장 축사
〈부록 14〉 8·15해방 2주년을 맞으면서 8·15해방 2주년기념 평양특별시민 경축대회에서 행한 金策의 연설
〈부록 15〉 4국 외상회의에 관한 미국무성 제안에 대한 몰로토프 쏘련 외상의 회한
〈부록 16〉 스띠꼬브대장의 식사

* 이 논문은 1984년 12월 19일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필자의 졸고 「정권 형성기와 정권 초창기의 북한 연구 Ⅰ : 한국동란기에 미군이 노획한 북한 문서에 대한 소개를 중심으로」에 이어 쓰여졌다. 이 논문을 준비함에 있어서 필자는 미국 워싱턴 디·씨 소재 우드로 윌슨 국제학술원의 케난 고등소련연구소(Kennan Institute for Advanced Russian Studies, The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로부터 1984년도 여름의 객원연구비를 받았다. 이 점에 대해 케난연구소 서기인 엘리슨 (Herbert Ellison)교수와 조지타운 대학교 외교대학의 중국학 교수인 로빈슨(Thomas Robinson) 박사에게 감사한다.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부교수

Ⅰ. 머리말

정권 형성기와 정권 초창기의 북한을 정확히 이해하는 작업은 아마도 이 시기에 있어서 북한과 소련의 관계를 엄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북한에 미친 소련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며 배타적이었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 스칼라피노(Robert A. Scalapino)와 李庭植은 대단히 침착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썼다:

> 1948년 말에 소련의 〔북한〕 점령은 종말에 이르렀다. 그러나 소련의 영향력은 몇 해 동안 계속해서 지배적인 것이 된다. 소련의 권력을 통해 하나의 공산정권이 아시아에서 가장 보수적인 사회들 가운데 하나인 이 지역에 이식됐다. 북한은 토착적인 혁명을 통해서도 아니오 공산주의와 민족주의의 단합을 통해서도 아니라 소련 군대의 등에 업혀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다.[1]

金應澤도 자신의 정치학박사 학위논문인 「중소분쟁과 북한」에서 "소련은 북한에서 1945년부터 1950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다"고 썼다.[2] 이 시기의 북한 정치를 비교적 객관성 있게 관찰한 그는 소련 점령군이 ① 순수형의 연합 ② 사이비형의 연합 ③ 공산당 단일정권 형성이라는 세 단계를 치밀하게 계획하고 조종함으로써 1948년 9월에 마침내 북한에 소비에트정권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3] 이어 그는 북한 정권에 대한 소련의 지속적인 강력한 영향력 그리고 소련의 동북아시아정책이 1950년 6월 북한의 전면 남침에 따른 한국전쟁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4] 비단 이 세 학자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권

1) Robert A. Scalapino and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Part I (*The Movement*), p. 380.
2) Uoong Tack Kim, "Sino-Soviet Dispute and North Korea," unpub. Ph. D. dis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67, p. 52.
3) *Ibid.*, pp. 43~57.
4) *Ibid.*, pp. 60~68.

위있는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정권 형성기와 정권 초창기의 북한이 소련의 압도적인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으며, 소련의 직접적이며 강력한 지원 없이 김일성 정권의 수립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이처럼 정권 형성기와 정권 초창기의 북한에 대한 소련의 압도적이며 배타적인 영향력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공통되게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소련이 취한 對북한정책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연구가 참으로 적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몇 편의 글들이 나와 있으나,[5] 이 글들은 불충분한 자료들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고,[6] 지극히 반소적인 입장에서 쓰여진 경우도 있다.[7]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의 소련의 對북한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요청된다는 페이지(Glenn D. Paige)의 지적은[8] 여전히 타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시기의 소련의 對북한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대단히 시급히 요청되는 작업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들로부터의 접근과 분석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우선 이 시기에 북한은 소련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고 소련은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느냐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이 시기의 북한·소련 관계를 조명함으로써 소련의 對북한정책의 한 부분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

5) 예컨대 J.W. Washburn, "Russian Looks at Northern Korea," *Pacific Affairs*, Vol. XX, No. 2 (June 1947), pp. 152~160 ; W.B. Dubin, "The Political Evolution of the Pyongyang Government," *Pacific Affairs*, Vol. XXIII, No. 4 (December 1950), pp. 339~355.

6) 예컨대 U.S. Department of State, *North Korea: A Case Study in the Technique of Takeover* (Washington, D.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1). 이 책은 1950년 10월 28일 한국으로 파견된 미국무성의 연구단이 한국전쟁 발발 이전의 북한 정권을 조사하여 만든 것이다. 徐大肅 교수는 이 책에는 사실에 어긋나는 정보들이 꽤 많이 들어 있다고 평가한다.

7) The Research Institute for Internal and External Affairs, *North Korea under Communism: A Story of Suppression* (Seoul: The Research Institute for Internal and External Affairs, 1963).

8) Glenn D. Paige, *The Korean People's Democratic Republic* (Stanford: The Hoover Institution on War, Revolution, and Peace, 1966), p. 16.

Ⅱ. 소련의 「북한 해방」에 대한 북한의 인식

소련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분석함에 있어서 첫번째 작업은 한반도의 해방에 대한 소련 및 소련군의 역할에 대한 분석이다. 이 점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자료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무성 보안간부학교」가 자체의 내부 교육 교재로 1949년 1월에 발행한 『해방후 조선(강의 요강)』이다. 등사물인 이 책은 크게 보아 네 권으로 되어 있다. 전체 분량이 3백 12페이지인 제1권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서문
1.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통치기반에서 쏘베트군대에 의한 조선인민의 해방
2. 해방된 조건하에서 인민정권 수립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의 시초
3. 조선에 관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중심한 민주와 반동의 대립의 첨예화
4. 북조선 민주개혁과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물질적 토대의 축성
5. 미 제국주의 식민지정책을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의 투쟁
6. 남조선 괴뢰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조선 인민의 투쟁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
8. 조국의 통일과 국토완정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
총결론

이어 제1 분책이 있다. 등사물로 1백 48페이지에 이르는 제1 분책은 제1장이 「대일전쟁에서의 쏘련의 결정적 역할과 조선의 해방」이며 제2장이 「조선문제 해결에 있어서 민주와 반동 간의 투쟁」이고 제3장이 「남조선의 정치 경제 정세」이다. 이어 제2 분책이 있다. 등사물로 1백 34페이지에 이르는 제2 분책은 제4장 「진정한 인민정권 기관인 인민위원회」로 시작된다. 제5장 「인민정권하의 북조선 민주개혁」과 제6장 「북조선 민주개혁의 력사적 의의」 및 제7장 「북조선 새 민주정당들과 사회단체」로 계속된다. 이어 제3 분책은 제8장 「통일적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으로 시작된다. 제9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

립」과 제 10 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및 제 11 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경제 발전의 2개년 계획」으로 끝맺는다.

1. 『해방후 조선』에 나타난 소련에 대한 북한의 인식

제 1 권 제 1 장의 제 2 절이 「제 2 차 세계대전에서 국제민주전선의 승리와 쏘베트 군대에 의한 조선 인민의 해방」이다. 여기서 한민족의 해방에 대한 소련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 조선을 해방시킴과 함께 쏘베트 군대는 잔존 일본 군대의 발악적 반항을 물리치면서 북조선에 진주하였다. (p. 15)

> 쏘베트 군대의 북조선 진주는 조선 력사 발전의 새로운 시작을 열어 놓았다. 조선 인민을 억압하던 낡은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 기구가 북조선에서는 근본적으로 파괴되었다. 쏘베트 군대에 의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온갖 악법들이 폐지되었다. 이것은 주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을 극히 유리하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되었다. 곧 파괴된 낡은 통치 기구 위에서 새로운 인민정권을 수립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준 것이었다. (p. 17)

> 쏘련 군대는 우리나라 강토에서 왜놈의 군대를 구축하고 우리 조선 민족을 자유롭게 해방시키면서 우리 조국에 진주하였읍니다. 그 결과 우리 민족의 천추에 사모친 멸시와 노예의 시대는 종국되었으며 우리 민족 앞에는 양양한 재생의 전도가 열렸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영웅적으로 투쟁한 쏘련군의 영예스러운 공적을 대대손손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pp. 18~19 : 1948 년 봄 평양 남북회담에서의 김일성의 연설로부터의 인용)

이상에서 살폈듯이, 북한은 한민족의 해방이 한민족의 해방 투쟁의 산물이 아니라 소련의 승리의 결과라고 파악했다. 제 1 권 제 2 장은 이 점을 다음과 같이 더욱 명백하게 지적했다: "조선인민의 해방이 자력으로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특수한 국제적 조건 하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쏘베트 군대의 승리로써 얻어진 것이다."(p. 27)

소련에 대한 인식이 이러하였기에 『해방후 조선』은 「해방자」로서의 소련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예찬했다:

> 위대한 쏘베트사회주의국가는 조선 인민을 일본 제국주의의 기반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자기 무력과 인민의 류혈을 희생하였고 실지로 조선 인민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었다. 위대한 사회주의국가 쏘련은 해방된 조선 인민에게 자기의 조국을 자기의 지망대로 재건하며 인민민주주의 길로 발전할 수 있는 온갖 조건들을 지여 주었다. 쏘련 인민의 지지와 사심 없는 경제적 문화적 기술적 원조를 받아서 조선 인민은 조국 북반부를 론론한 자주 독립과 인민민주주의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군사적 기지로 만들어 놓았다. 참예한 국내 반동의 예속화 기도는 대립하는 쏘련 점부에 의하여 조선 인민의 원수인 미 제국주의자들의 예속화정책이 폭로되였으며 조선 인민의 민주주의적 민족적 리해가 천명되었다. (p. 310)

「해방자 소련」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찬양은 제 1 분책의 제 1 장 제 2 절 「쏘베트 군대는 조선 인민의 해방자이다」(pp. 13~22)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서 『해방후 조선』의 필자는 2 차 대전 중에 소련의 주도적 노력 아래 「반팟쇼적 련합」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고, "그리하여 쏘베트 군대가 파시스트국가의 무력을 타파하는 사업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p. 14)고 결론지었다. 이 결론을 부연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1942 년 겨울 스딸린그라드 공방전의 위대한 승리와 그르스크에서의 독일 주력부대의 전면적 파멸 및 뒤이은 소련의 계속적 승리는 힛틀러 군대를 국경 밖으로 축출하였으며 그들의 소굴로 도로 몰아 넣어 궁박케 하였다. 소련 인민들의 이러한 영웅적 투쟁은 파시스트 독일에 점령되었던 각 민족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었으며 반파시스트들 투쟁에 고무시켰으며 미 영 제국주의 내부의 근로인민들까지 반힛틀러 투쟁에 승리를 확신케 하였다. 미 영 제국주의 부르조아지의 가진 반동적 책동과 배공에도 불구하고 반파시스트 전선은 더욱 결속되었으며 승리를 향한 용감한 전진으로 추동되었다. 1943 년 여름에는 이태리침략자들이 파시스트 전선의 약화와 패망을 촉진시켰다. 1945 년 봄 쏘련 군대는 파시스트 군대에게

유린당하였던 전 구라파의 제 민족을 해방시키고 파시스트의 아성인 백림을 포위하였고 힛틀러 독일을 최후적으로 멸망시켰다. 이것은 제 2 차 세계대전에서 민주전선의 승리를 결정적 사실로 만들었다. 미 영 제국주의자들은 독일의 패망이 결정적으로 되고 그 붕괴가 시간적 문제로 임박한 그 뒤에 이르러서 비로소 서부전선에서 진격을 개시하여 쏘련이 이미 얻은 성과에 참여하려고 덤벼들었다."(pp. 16~17)

이어 필자는 일제의 패망 역시 소련 군대에 의한 것임을 다음과 같이 논증하고자 시도했다 : "독일의 패망은 고립무원한 일본 제국주의로 하여금 그 패망을 불가피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의 급속한 타도는 다만 쏘련의 결정적 역할로서 가능하였던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는 동방에서 세계 제국주의의 지주였으며 평화교란의 책원지로 있었다. 독일이 멸망한 후에도 그는 자기의 침략전쟁을 계속하며 장기전화함으로써 아세아 제 약소민족들의 장구한 노예생활을 지속시키려고 하였던 것이다. 1945년 7월 말 포츠담선언을 찬동한 쏘베트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가 거부한 것은 쏘베트 군대로 하여금 일본에 대한 宣戰을 불가피한 것으로 만들었다. 8월 9일 쏘련 군대의 일본 관동군에 대한 진격의 개시는 그에 대한 치명적이며 결정적인 타격이었다. 이리하여 일본은 일주일도 못되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동방에 있어서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와 전쟁의 참화를 연장시키려던 그 목적은 좌절되었으며 아세아의 제 민족은 그 질곡에서 해방되었다."(pp. 17~18)

이어 필자는 한민족의 해방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제 2 차 세계 대전은 쏘련 군대의 결정적 역할로써 민주주의의 승리로 종결되었다. 조선인민을 억압하던 장구한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가 파괴 당하였다. 이 전쟁의 승리는 직접적으로 제 약소민족의 지배자들을 타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쏘베트 사회주의 국가의 위신을 국제적으로 전에 없었던 高度에 제고시켰다. 이는 동시에 미 영 제국주의자들이 전시에 음폐하였던 그 침략적 목적을 전후에 이르러까지도 제 마음대로 실현할 수 없게

하는 조건으로 되었다. 파시스트 국가에 예속되었던 약소민족들은 쏘련의 강대한 국제적 위신과 비중에 의하여 자기의 완전한 해방을 보장하는 거대한 지주를 얻게된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예속 하에 있었던 조선 민족도 전후 점차로 로골화하여 가는 미 영 침략적 야망에도 불구하고 쏘련의 원조로써 견정한 해방의 성과와 로선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p. 18)

이어 필자는「쏘베트 군대의 직접 진주는 조선 민족 해방의 보장이다」라는 항목에서 "제 2 차 세계 대전의 종결과 함께 쏘베트 군대는 련합국간의 협정에 예견된 바 원칙에 근거하여 북조선 지역에 진주하였다.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 요소를 철저히 소탕하며 조선 인민의 민주주의 자주독립 국가 건설을 확보하며 원조할 목적을 가진 것이다"(p. 19)라고 전제하면서, 다음과 같이 부연했다 : "약소민족의 해방자로서의 쏘련의 위력과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제 약소민족 및 자국내 근로인민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압력으로 말미암아 형식적으로 민주자결 원칙과 조선독립을 자기의 침략적 목적을 음폐하면서 표방하지 않을 수 없었던 미 영 제국주의자들은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벌써 그 침략자적 의도를 발로하였다. 반동가들의 이 국제적 촉수는 본래 파시스트 강도배들과 전면 절연되어 있지 않았으며 그들의 경쟁자가 넘어 간 뒤에는 그 자리에 대신하여 자기의 새로운 군사적인 또 하나의 식민지적 지배체제를 수립하려는 탐욕을 로골적으로 들어내기 시작한 것이다. 영국 제국주의자들은 해방된 파란의 민주주적 인민정권을 전복하기 위하여 파란 인민을 반대하여 반동파들을 원조하였다. 발간에서 쏘베트 군대의 영웅적 승리와 인민들의 반파시스트 해방 투쟁으로 말미암아 나치스 군대들이 이미 격퇴된 뒤에 영국 제국주의자들은 희랍에 자기 군대를 상륙시키고 희랍 인민의 류혈적 투쟁의 성과로 전취한 인민정권을 억압하고 파시스트 왕당파의 괴뢰 정부를 수립시킴으로써 인민을 다시 파시스트 억압과 류혈적 내정으로 몰아 넣었다. 이리하여 미 영 제국주의자들은 각처에서 나치스 헷틀러 악당들의 지배가 전복된 자리

에 그를 대신하여 인민을 반대하는 새로운 투쟁을 조직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pp. 19~20)

필자는 이어 "이러한 국제 파시스트 잔당 및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조선 민족에게도 중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주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의 파멸이 곧 조선 인민의 해방을 확고부동한 것으로 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될 수 없었으며 새로운 침략가들에 의한 예속화의 위협은 이로써 제거되어 있지 않았던 것"(p. 20)이라고 보았다. 이어 그는 "일본 제국주의를 직접 타도하고 그 지배에서 조선 민족을 해방시킨 위대한 쏘베트 군대의 북조선 지역에서의 진주는 조선 민족의 민주와 독립을 위한 투쟁을 원조하며 외래 제국주의 침범에서 자립적 역량으로의 장성을 보위함에 있어서 새로운 중대한 의의를 가졌다"고 썼다.

그러면 소련 군대는 왜 「약소민족의 해방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는가? 이 물음에 대해 필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약소민족을 해방시키며 그 해방의 성과를 공고히 함에서 수행한 쏘베트 군대의 위대한 역할은 그 자체의 특성에서 나온 것이다. 쏘베트 군대는 인류 역사에서 전혀 새로운 형태의 군대이다. 이 군대는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후 지주와 자본가들의 착취제도를 복구하려는 반혁명과 제국주의 무장 간섭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 속에서 조직되었으며 쏘베트 인민의 사회주의적 평화와 제 민족 간의 우의적 친선과 번영을 수호하는 사업에서 장성되었고 파시스트의 침략과 파괴에서 사회주의 국가를 방위하며 전 세계 피압박 민족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제 2 차 세계 대전에서 더욱 굳게 단결되고 결속된 로동자 농민의 군대이다. 그러므로 이 군대는 세계의 민주주의적 평화와 안전과 자유애호인민과 약소민족들의 리익을 위한 투쟁에서 자기희생적인 영웅성을 발휘하는 것이다."(pp. 20~21) 즉 "쏘베트 군대의 해방적 사명은 그를 낳고 그를 육성시킨 사회주의 쏘베트 국가의 탁월한 국가적 사회적 제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썼다: "쏘베트 사회주의 국가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없는 나라로

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증오하며 반대한다. 쏘베트 국가에서는 한 쪽의 식민지도 필요치 않으며 또한 요구하지 않는다. 위대한 레닌과 쓰탈린의 지도로써 창건되고 장성한 쏘베트 국가는 근로인민의 진정한 민주주의 나라로서 그 창건 첫 날부터 세계 근로인민과 약소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지지하며 그를 위한 투쟁의 선두에 서는 것이다."(p. 21) 소련의 성격이 이러하기 때문에, "쏘베트 군대의 북조선 진주는 북조선 인민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전체 조선 인민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달성할 기지를 창건함에 있어서 거대한 보장으로 되었다"(p. 21)고 주장했다.

소련의 북한 해방 역할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해방후 조선』 제 2 분책 제 4 장 제 1 절에서도 나타난다. 여기서 필자는 "제 2 차 세계 대전의 종결을 지어놓은 일본 제국주의의 무조건 항복과 쏘련 군대의 북조선 진주는 해방된 조선 인민의 전면적인 정치적 앙양을 초래하였다"고 전제하고, "쏘베트 군대는 북조선에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모든 통치기구와 그들의 경찰조직을 신속히 소탕하고 온갖 일본 제국주의의 악법들을 폐지하였으며 조선 인민에 대한 일체 범죄자들을 처단하여 버렸다"고 지적했다. (p. 1) 이어 소련 점령군 사령부의 포고문 1 호의 전문을 소개한 다음, 이 포고문이 "전체 조선인민들에게 해방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새로운 생활의 창조를 위한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고 썼다. (p. 3) 이 점을 부연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쏘베트 무력이 북조선에 직접 진주한 조건은 일본 제국주의의 모든 세력을 소멸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한 민주주의 자주 독립을 위한 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방해하려는 모든 반동기도들을 억제함으로써 국내 반동의 진출을 진압하였으며 또한 조선 인민을 위협하는 여하한 외국 침략 세력도 침입할 수 없게 하는 결정적 힘으로 되었다. 이리하여 북조선 인민들에게는 자유로운 정치적 활동과 완전한 자유의 향유가 보장되었다. 쏘베트 군대의 북조선 진주는 남조선 인민들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해방 전 일본 통치기관의 중심이 남조선에 있었던

점과 쏘베트 군대의 진격으로 말미암아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뒤에도 아직 남조선의 일본 통치기구는 연합국 무력의 여하한 타격도 받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던 이 사실은 북조선과 차이 있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쏘베트 군대의 일본에 대한 결정적인 타격으로 일본이 패망한 것과 그가 북조선으로 진주하게 된 것 및 일부에서 쏘베트 군대의 남조선에까지의 진주를 예상하였던 사실들은 그들의 기존 정치적 경제적 기타 제 압력을 마비 상태에 들어가게 하였다. 그들은 장차 쏘베트 군대에 의한 무자비한 처단이 있을 것을 예상하며 겁내었던 것이다."(pp. 3~4)

2. 정치 지도자들의 연설에 나타난 북한의 소련 인식

이어 당시의 북한 정치 지도자들의 연설 또는 발언에서 찾아 보기로 한다. 앞에서 살핀 『해방 후 조선』 제 1권은 「북조선 민주개혁 승리의 조건」이라는 항목에서 그 조건으로 네 가지를 꼽으면서 제일 먼저 소련 군대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찬양했었다.

> 북조선 민주개혁의 승리는 해방자 쏘베트 군대의 영예 있는 이름과 결부되어 있다. 쏘베트 군대는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함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북조선에 직접 진주함으로써 외래 제국주의의 침공에서 조선 인민을 방위하였으며 국내 반동세력들을 급속히 소탕하여 북조선 인민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였으며 자주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원조하여 주었다. 쏘베트 군대는 일본 제국주의 자들과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소유로 있던 산업 운수 체신 은행 등 기관을 조선 인민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으며파괴된 산업을 복구하기 위하여 수다한 기술자들을 파견하여 곤란한 기술과정을 지도원조하였으며 민족간부의 부족을 보충하였으며 원료 자재 등을 원조하여 주었다. 과학 문화 보건 각 방면에서 조선 인민의 자립적 발전을 위한 수다한 원조가 베풀어졌다. 이러한 不絕의 원조가 없었다면 북조선 민주 개혁의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p. 104)

이러한 입장은 북한 지도층의 연설문이나 발언 또는 논설에서도 발견된

다. 그것들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북조선인민위원회 농업국장 李觀根의 발언**(북조선인민회의 제2차 회의 : 1947년 5월 15일. 「농업현물세 개정에 관한 법령에 대한 보고」)——"제2차 세계 대전에서 민주주의 연합국 특히 쏘련의 결정적 역할로 인하여 조선은 일본 제국주의 기반에서 해방되었습니다."(북조선인민회의원, 『북조선인민회의 제2차 회의 회의록』, p.6)

◆**김일성,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사업에 관한 총결 보고」**(북조선인민회의 제1차 회의 : 1947년 2월 26일)——"연합군의 일본 제국주의 격파와 쏘련군의 북조선 진주는 우리 민족의 장구한 역사에 가장 영광스러운 페이지를 열어 놓았읍니다. 우리는 일본 침략자의 장구한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으며 우리에게 우리 민족의 독립과 민주주의적 새 조선을 건설할 가능성을 지어 준 쏘련군을 진심으로 환영하였읍니다. 도시와 농촌에서 성대한 경축대회를 거행한 것은 인민이 우리의 위대한 우방인 쏘련과 그의 수령인 스딸린 대원수에게 뜨거운 감사와 축하를 드린다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북조선인민회의원, 『북조선인민회의 제1차 회의 회의록』, p.9)

◆**김두봉,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초안에 관한 보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임시헌법제정위원회 위원장」) : "위대한 쏘련 군대의 영웅적 투쟁으로 1945년 8월 15일 북조선은 일본 침략자들에게서 해방되었읍니다. 그리하여 북조선 인민 앞에는 북조선을 민주주의적으로 개혁할 광명한 전망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북조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북조선인민회의특별회의회의록』, 1948년 8월 27일 발행, p.6. 김두봉의 보고는 회의 제1일인 1948년 4월 28일자)

◆**崔金龜 대의원**(평남)**의 발언** : "위대한 해방군인 쏘련 군대가 우리 조국 강토에서 강도 왜놈들을 구축한 이후 북조선 인민들에게 자유발전의 길을 열어 주었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 회의록』, 1948년 12월, 국영제1인쇄소, p.109. 이 발언은 제3일 회의인 1948년 9월 6일자)

◆**박헌영 대의원**(서울) : "우리 민족 해방투쟁을 위하여 조선 인민의 아들딸과 또한 조선의 해방자 쏘련군의 장병들이 흘린 피가 헛되지 않았읍니다.(p.174) […] 근 반세기 동안 일제의 식민지로서 압박과 착취를 받으면서 조선 인민들은 불절히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애국투쟁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되었읍니다. 마침내 역사적인 8·15해방은 왔읍니다. 쏘련군은 고귀한 희생을 무릅쓰고 일본 제국주의 군대와 영웅적으로 싸워 그것을 격파하고 우리를 일제기관으로부터 영원히 해방하

였읍니다. 쏘련군의 원조로써 조선이 일제의 기반으로부터 해방되고 독립국가로 회복되며 상실하였던 외교권을 다시 가질 조건을 갖게 된 것입니다.(pp.184~185) […] 쏘련은 시종일관 민주주의와 평화와 민족평등을 존중하고 이 원칙을 위반하는 나라를 반대하여 약소민족의 권리를 옹호하는 가장 진보적인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있어서 사실로 증명되었읍니다. 쏘련은 히틀러 독일과 군국주의 일본을 거의 단독의 힘으로 격파하고 자기의 독립을 위하여 싸웠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독일과 일본 강점자의 압박하에서 신음하던 구타파와 아세아 제 민족을 해방시켰읍니다. 이 나라들을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이 러한 제국의 인민들이 자기 주권을 확립하고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북조선은 그 한 가지 실례가 되고 있읍니다. 만일 북조선에 쏘련군이 아니고 다른 나라 군대가 진주하였다면 금일과 같은 민주주의 발전이 없는 것은 미군 점령하의 남조선 사태를 보면 또한 명백한 것입니다.(p.187)" (*Ibid.*, 제4일, 1948년 9월 7일)

◆**김두봉, 「조선임시헌법준비에 관한 보고」**, 북조선인민회의 제3차 회의 제1일 (1947년 11월 18일) : "지금 쏘베트 동맹의 주위에는 전 세계 민주주의 진보적 역량이 집결되어 있읍니다. 쏘베트동맹은 구라파 인민들을 파쇼 침략자들에게서 해방시키고 중국 인민과 조선 인민을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적 압박에서 해방시키고 전 세계 문명을 구원하였으며 감사에 넘치는 전 인류의 경애와 존경을 받게 되었읍니다."(출전 : 『북조선인민회의 제3차 회의 회의록』, 1947년 11월, p.7)

〈부록 1〉 소련점령군 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문 1호

조선 인민들에게 !

조선 인민들이여 ! 붉은 군대와 동맹국 군대들이 조선에서 일본 략탈자들을 구축하였다. 조선은 자유국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조선 력사의 새 첫 페이지가 될 뿐이다. 화려한 과수원은 사람의 로력과 고려의 결과다. 이와 같이 조선의 행복도 조선 인민이 영웅적으로 투쟁하며 꾸준히 로력하여야만 달성된다.

일본 통치 하에서 살던 고통의 시일을 추억하라 ! 담 위에 놓인 돌멩이까지도 조각돌까지도 괴로운 로력과 피땀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가 ?

누구를 위하여 당신들이 일하였는가 ? 왜놈들이 고대광실에서 호의호식

하며 조선사람들을 멸시하며 조선의 풍속과 문화를 모욕한 것을 당신들이 잘 안다. 이러한 노예적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진저리나는 악몽과 같은 그 과거는 영원히 없어져 버렸다.

조선사람들이여 기억하라. 행복은 당신들의 수중에 있다. 당신들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다. 이제는 모든 것이 좌다 당신들에게 달렸다.

붉은 군대는 조선 인민이 자유롭게 창작적 로력에 착수할 만한 모든 조건을 지여 주었다. 조선 인민 자체가 반드시 자기의 행복을 창조하는 자로 되어야 할 것이다.

공장 제조소 및 공작소 주인들과 상업가 또는 기업가들이여! 왜놈이 파괴한 공장과 제조소들을 회복시키라! 상업 및 공영 기업소들을 회복시키라! 상업 및 공영 기업소들을 새로 개설하라! 붉은 군대 사령부는 모든 조선 기업소들의 재산 보호를 담보하며 그 기업소들의 정상적 작업을 보장함에 백방으로 원조할 것이다.

조선 로동자들이여!

로력에서의 영웅심과 창작적 로력을 발휘하라! 조선 사람의 훌륭한 민족성 중 하나인 로력에 대한 애착심을 발휘하라!

진정한 사업으로서 조선의 경제적 및 문화적 발전에 대하여 고려하는 자라야만 모국 조선의 애국자가 되며 충실한 조선 사람이 된다. 해방된 조선 인민 만세!

붉은 군대 사령부

(출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무성 보안간부학교, 『해방후 조선』, 제 2 분책, 1949년 1월, pp. 1~3)

〈부록 2〉 1949년의 조쏘협정에 대한 『해방 후 조선』의 평가

1948년도 1개년 경제계획에 이은 1949~1950년의 새 2개년 인민경제계획은 인민공화국 중앙정부 주위에 뭉친 전체 인민의 계획 수행을 위한

창발적 노력이 존재하는 조선으로서 특히 쏘베트 사회주의국가의 나날이 강화되어 가는 친선적 원조가 존재하는 조건으로서 그 수행의 승리적 성과를 보장 받았다. 새 2개년 계획의 수행에 긴절히 요구되는 쏘련과의 경제 및 문화 교류의 활발한 촉성을 위하여 인민공화국 정부는 이 교섭에 대한 쏘련 정부의 응락에 기초하여 2월 19일 내각 결성으로서 김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한 정부대표단을 파견하였다. 조선 인민과 쏘련 인민의 견고한 친선은 우리 인민공화국대표단에 대한 쓰딸린 대원수를 위시한 쏘련 정부 및 쏘련 인민들의 환영과 각서로 나타났다.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상호 원조와 상호 리해와 정신으로써 량국 대표단은 경제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들을 체결하였다. 4월 19일에 개막된 인민회의 제3차회의는 자기 사명을 완수하고 귀국한 쏘련방문대표단을 대표하여 진술한 김일성 동지의 사업경과 보고에 근거하여 만장일치로 협정을 승인한 데 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조쏘 량국 간의 《경제 및 문화 협조에 관한 협정》은 협조 동등 및 호상 리익의 기초 위에서 량국 간의 통상 관계를 백방으로 발전강화시키며 각 분야에 걸쳐 기술적 원조를 교환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 협정은 1차적으로 10년간을 기한으로 하고 이 기간이 끝난 후 량국 간에 도달된 협정에 근거하여 1949~1950년 간의 상품 류통에 관한 협정 량국 간의 차관에 관한 협정 기술적 원조에 대한 협정 량국 간의 문화 교류를 강화함에 대한 협정들이 체결되었다. 협정에 근거하여 무역 총액은 1949년에 3억 3천 7백 4만 루블리 1950년도에는 6억 8천 4백 21만 루블리로 설정되었는데 이것은 1946년 량국 간 무역 총액에 비하여 456.5% 및 937.5%의 장성이었다. 쏘련 정부는 1949년 7월 1일부터 1952년 7월 1일까지에 년등분으로 2억 1천 2백만 루블리의 차관을 주게 되었는데, 이 지불은 1952년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3년간 년등분으로 예견되었다. 협정에는 또한 기술적 원조에 대한 문제들, 문화 교류 과학일군 및 학자들의 파견, 류학생들의 파견 등에 대한 문제들이 역시 규정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량국 간의 문화적 교류는 더욱 더 강화될 것이었으며 과거 조선

문화의 락후성을 퇴치할 중요한 보장이 확증된 것이다. "이 협정들은 우리 공화국의 경제발전 2개년 계획의 초과 완수를 위한 조건들을 지어줌으로써 우리 공화국의 정치적 기초를 일층 튼튼하게 할 것이며 인민들의 물질문화 생활을 일층 제고시킬 것입니다"라고 김일성 동지는 말했다.(제 1권, pp. 230~231.)

〈부록 3〉 북조선인민회의 제 1 차 회의 제 2 일(1947년 2월 22일)에서 채택된 「쏘련군대 탄생 29주년 기념일 축하문」

「…」 조선인민은 위대한 쏘베트 군대가 독일 파시스트들에게 대한 유혈적 투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자기의 어깨에 지니었으며 일본 제국주의를 철저히 박멸함으로써 인민의 자유와 진보를 억압하는 폭악한 원쑤들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였으며 구라파와 아세아의 피압박민족들을 해방한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오랫 동안 비애와 고통 속에 어눌려 살아 온 조선인민의 위대한 벗인 쓰딸린 대원수가 우리 땅에 보낸 당신들 쏘베트 군대의 전사들은 오랫 동안 갈망하던 자유를 우리 인민에게 가져다 주었으며 새로운 생활과 민족적 부흥과 자주독립 및 각 민족의 가족적 단란 속에 평등권리로써 참가할 민주주의조선국가건설로 통하는 대도를 열어주었읍니다. 해방군인 쏘베트 군대의 이 위대한 업적은 결코 우리 인민의 기억 속에서 살아지지 않을 것이며 자자손손 우리의 후대의 가슴 속에 영원히 銘記되어 있을 것이며 천추만대에 빛날 것입니다. 쏘베트 군대의 방조와 협력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 인민은 일본 통치의 악독한 결과를 소탕하고 방방곡곡에 진정한 인민의 정권인 인민위원회들을 창설하였으며 인민의 정치 경제 및 사회 생활에서 위대한 민주주의 개혁들을 수행하였으며 국가인민경제를 성과적으로 부흥발전시키고 있읍니다. 평화 안전 및 인민의 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민주주의 역량의 선봉인 영웅적 쏘련 군대의 북조

선 전주는 이미 빛나는 성과를 거둡한 진정한 자주민주주의 조선 국가 건설사업에 있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고무하여 주고 있읍니다. 어찌 귀국 인민에게 또 쏘베트군대에게 감사드리지 않을 수 있겠읍니까. 어찌 위대한 쏘련군대의 용감하고 관대하고 영예로운 아들인 쏘베트 전사들 당신들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읍니까.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 군대로서 인민의 친밀과 자주 및 민주주의의 초소에서 날로 힘있게 번영하여 가는 쏘베트 군대의 29주년 기념일을 맞이한 당신들을 축하하며 우리는 당신들에게 충심으로의 뜨거운 우정과 아울러 북조선 인민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조선인민과 해방군대인 쏘베트 군대와의 견고한 친선 만세! 우리 인민의 가장 친애하는 쏘베트 군대의 병사 장교 및 장군들에게 영광을 드립니다. 위대한 쏘베트연맹 대원수 이·브·쓰딸린 만세. (출전 : 북조선인민회의원, 『북조선인민회의 제 1 차 회의 회의록』, 1947년, pp. 62~63)

〈부록 4〉 소련점령군 사령관이 북조선 도시군 인민위원회 대회 제 1 일(1947년 2월 17일)에 보내는 축하문

북조선 주둔 쏘련 군대를 대표하여 나는 당신들의 대회를 경축하며 조선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분발하시는 당신들의 사업 성과를 전정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북조선 인민들은 일제의 강압에서 해방된 이후 자유 발전에 대한 일체의 가능을 성과적으로 이용하였으며 수 많은 조선인민대중의 창조적 역량은 실로 광범한 발전을 보았읍니다. 조선 인민은 자기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자립적 정치 건설과 자기의 민족국가 회복에 착수하게 되었읍니다. 조선 인민은 자유와 민주주의와 자기의 민족문화에 대한 정열을 표현하였으며 진정한 새 형태의 인민주권을 수립하였으며 거대한 민주개혁들을 실시하였읍니다. 단기간 내에 조선 인민은 자기의 조국을 정열적으로 애호하며 정치 및 사회 사정에서 지대한 국가 관리의 기능을 발

위한 진정한 애국주의적 민족간부들을 등용하게 되었읍니다. 지난 인민위원회 선거는 조선 인민의 통일과 단결성을 보여 주었으며 북조선에서 실시된 기본적 변혁에 대한 그의 동의를 표현하여 주었읍니다. 쏘련 인민은 자기의 민주주의적 자주 독립 국가 건설에 매진하는 조선 인민의 생활과 활동에 대하여 막대한 동정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조선 인민은 일본 침략가들의 수중에서 조선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피흘려 싸운 쏘련 인민과 그의 군대가 민주주의적 자주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 인민에게 앞으로도 끊임없이 원조하리라는 것을 조선 인민은 깊이 믿을 수 있읍니다.

북조선 주둔 쏘련사령관 치스쨔코프 군위대장 (출전 : 북조선인민위원회 선전부, 『북조선 도시군 인민위원회대회 회의록』, 1947년 4월, pp. 57~58)

〈부록 5〉 김일성, 「조쏘 량국간의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1주년에 제하여」

지금으로부터 한 해 전 1949년 3월 17일에 모쓰크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동맹과의 간에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들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들은 우리 조국의 해방자인 위대한 쏘련이 조선 인민에게 주는 사심 없는 진정한 원조의 표현이었으며, 조쏘 량국 인민 간의 강화·발전되어 가는 친선의 표현이었다. 이 협정들은 해방 후 조쏘 량국 간의 새로운 관계의 발전에 있어서 새 페이지를 열어 놓았으며, 우리의 젊은 신생공화국의 국제적 위신을 제고시키며 그의 무한한 번영과 장래발전을 보장하여주는 거대한 정치적·경제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 협정들에는 위대한 쏘련이 인민민주주의 제 국가들과 체결한 협정들에서와 같이 전 세계의 평화 안전을 수호하며 약소민족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히 하며, 대소 국가들의 동등적 입장에 기초한 협조들을

원칙으로 한 쏘딸린적 대외정책이 명백히 표현되었다.(p.3)

오늘 조쏘 량국 간의 관계는 이전 짜리로씨야와 조선 간의 낡은 관계에서 설정된 것이 아니라 해방과 원조에서 맺어진, 시초부터 근본적으로 다른 새 관계에서 설정되었다. 위대한 쏘련 군대는 우리 조국 강토에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격멸구축하고 우리 조국을 근 반세기에 걸친 일본 제국주의의 악독한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조선 인민에게 자기 조국을 자기들의 지망대로 재건하며, 민주주의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온갖 조건들을 지어주었으며, 민주주의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조선 인민에게 시종일관한 사심 없는 원조를 계속하여 주었다. 그리하여 위대한 쏘련 군대가 진주하였던 우리 조국 북반부에는 인민민주제도가 튼튼히 설정되었으며, 조선 인민들이 진정으로 자기 조국의 주인으로 되었다.

해방 후 4년 동안에 쏘련 정부가 조선 인민에게 준 시종일관한 정치적·경제적·문화적 및 기술적 원조들은 민주주의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조선 인민에게 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을 주었으며, 그들의 창조적 노력을 일층 앙양시키었다. 위대한 쏘련 정부가 조선 인민에게 준 부단한 원조와 자기 조국을 민주주의적으로 재건하는 조선 인민의 앙양된 창조적 노력의 결과는 오늘 조국 북반부로 하여금 우리의 젊은 신생 공화국의 강력한 군사·정치·경제·문화적 민주기지로 전변시켰으며,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의 물질적 문화 수준을 비상히 향상시키었다.

근 반세기에 걸친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의 악독한 결과는 우리 조선을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락후된 나라로 만들었으며, 인민들의 생활을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하였다. 패망 당시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허다한 공장 기업소들과 철도 운수들을 파괴하였으며 광산 탄광들을 침수시키었다. 이 파괴된 산업들과 철도 운수들을 부흥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는 기계 원료 자재들이 부족하였으며 기술이 부족하였다.(p.4)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 인민에게 기술을 소유시키지 않았으며, 조선 산업을 일본 산업에 부가시키는 기형적 산업으로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쏘련의 기술적 원조와 기계 자재 원료 상의 원조가 없이는 우리 산업과 운수의 복구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인민경제의 부흥발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우리 조국 북반부에 진주하였던 위대한 쏘련 군대는 파괴된 공장 기업소들과 철도 운수들과 탄광 광산들을 복구함에 있어서 우리 조선 인민에게 진정한 성원의 손길을 주었다. 쏘련 군대의 장병들은 공화국 북반부의 방방곡곡에서 우리 로동자들과 우리 기술자들과 혼연일체되어 파괴된 산업들과 운수들을 복구함에 있어서 거대한 업적을 남기어 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1948년 말에 쏘련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위대한 쏘련 군대가 우리 조국 강토로부터 철거할 때에 전체 조선 인민들이 쓰딸린 대원수에게 보낸 서한에는 쏘련 군대의 위훈과 업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되었다.

> 고국으로 돌아 가는 쏘베트 군대의 장병들을 전별하면서 우리 3천만 인민의 가슴에는 영웅적 쏘베트 군대의 은공에 대한 무한한 감격이 끓어 넘치고 있읍니다. 이 땅의 해방과 부흥에 끼친 쏘베트 군대의 영예로운 공적은 찬란한 하늘 높이 솟은 해방탑들과 쏘련의 원조로써 복구되어 증산의 연기를 품어 올리는 공장들에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며, 풍작에 흥성거리는 자유의 전원이며 창조의 열정이 벅찬 이 나라 인민들의 슬기로운 모습에 영원히 살아 있을 것입니다. 조선 인민은 쏘베트 군대의 영웅적 위훈을 천추만대에 나려 가며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 위훈에 대한 가지가지 이야기는 신기로운 전설인 양 자자손손 전하여지면서 인민 속에서 해방군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감사를 길이 자아낼 것입니다.

위대한 쏘련 군대가 우리 조국 강토에서 철거한 후 신생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앞에는 해방 후 3년 동안(p.5) 쏘련 군대의 원조에 의하여 복구된 공장 기업소 철도 운수들을 원만히 운영하며, 인민경제를 급속히 복구 발전시킴으로써 인민들의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급속히 향상시키며, 각종 전문대학들을 더 많이 창설하여 민족간부들을 급속히 양성할 임무들이

제기되었다. 이 임무들을 성과 있게 실천하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쏘련의 경제적·문화적·기술적 원조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국정부는 1949년 3월에 공화국정부대표단을 모쓰크바에 파견하여, 쏘련과의 10년을 기한으로 하고 조쏘 량국 간의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들을 체결하였던 것이다. 이 협정들은 조쏘 량국 간의 우호적·평등적 원조에서 체결되었으며, 호상협조의 원칙에서 체결되었다. 이 협정들에는 조쏘 량국 간의 호상협조 동등 및 호상 리익의 기초 위에서 량국 간의 통상관계를 강화발전시키며 량국의 인민경제 발전의 수요에 필요한 량국 간의 끊임 없고 증가되는 상품교류를 보장하여 주며 량국 간의 문화 과학 및 예술 분야에서 설정된 관계들을 백방으로 발전시키며, 전문가의 파견 기술원조 전람회조직 종자 및 식물표본의 교환 등 방법으로 산업 및 농업 분야에서 량국 간의 경험 교환을 강화하며, 우리 신생공화국에 쏘련정부로부터 차관 줄 것이 예견되었다. 이 협정에 의하여 량국 간의 통상관계는 일층 발전·확대되게 되었으며, 우리 공화국은 인민경제 발전에 필요한 시설품 기계 기계부속품 자재 원료 콕구스탄 전기기관차 농기구 기계류 면화 직조품 등 중요 물자들을 받게 되었으며, 그 대신에 우리 공화국은 우리가 생산하는 금속제품 화학제품 토산흑연 아연 천광 등 기타 생산품을 쏘련에 수출하게 되었다.(p. 6)

우리의 인민경제를 부흥·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모든 공장들을 복구하며, 복구된 공장들은 자기의 성능을 다 하여 조업케 하며, 우리 산업의 편파성을 퇴치하며, 인민경제 발전과 인민생활에 가장 필요한 새 공장들을 시설하여야 할 것이었다. 이 과업들을 실행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쏘련에 수출하는 것보다 쏘련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이 더 많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량국 간에 체결된 협정에 의하여 쏘련 정부는 3년을 기간으로 하고, 우리 신생 공화국에 2억 2천 2백만 루불리의 차관을 허여하였다. 이 이외에도 조쏘 량국 간에 체결된 협정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은 우리 인민경제 부흥발전과 민족간부 양성과 민족문화의 급성발전에 필요

한 기술적 원조와 문화적 원조를 받게 되었다. 이 협정에 의하여 쏘련 정부는 우리 신생공화국에 많은 기술자들과 학자들을 보내게 되여 우리의 산업을 부흥·발전시키며, 민족간부들을 양성하며, 민족문화를 급속히 발전시킴에 기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조쏘 량국 간에 호상협조와 동등적 립장에서 체결된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장래 발전과 륭성에 있어서 거대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위대한 쏘련이 조선 인민에게 주는 진정한 원조를 또 한번 보여 주고 있다. 이 협정이 체결된 후 1년 동안에 우리 조국 북반부에서는 선진기술과 선진지식들을 요구하는 광대한 전 인민적 건설 사업이 전개되었다. 쏘련 정부는 조쏘 량국 간에 체결된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에 기초하여 신생공화국의 산업건설에 필요한 기계 자재 원료들을 충분히 제공하여 주었으며, 기술자들을 파견하여 우리의 산업들을 부흥·발전시키며, 새 생산부문들과 공장들을 설계함에 있어서 거대한 기술적 원조를 주었다. 중공업 방면에 있어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쏘련의 기술적 원조와 기계 자재 원료 상의 원조에 의하여 황해제철소 4호용광로와 해탄로가 복구되었으며 황해제철소의 기본 기술문제들이 해결되었으며, 강선제강소 성진제강소 흥남비료공장 대기업소들에서 생산 부문의 시설과 기술적 개선문제들이 해결되었다. 쏘련 기술자들의 도움에 의하여 지난 한 해 동안에 문평아연공장 청진제철소 남포판초자공장 평양기계 평양방직 등 대기업소들이 복구되며 새로 설계되기 시작하였다.(p. 7)

지난 해에 우리 조국의 전력의 원천인 수풍 발전소에는 파괴의 큰 위험이 닥쳐 왔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수풍 발전소의 광대한 건축을 낙후된 기술적 기초 위에서 진행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행정에서 야만적 방법으로 급속히 건설하고 복구수리하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던 결과에 수풍발전소는 파괴될 커다란 위험을 우리에게 주고 있었다. 수풍 발전소를 파괴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전인민적 복구사업과 창조적 노력이 전개되었다. 위대한 쏘련은 우리에게 기술자들을 파견함으로써 지난 한 해 동안에 수풍댐

에 무른 공사 사업을 성과 있게 완성하고 몰방 대전물인 수풍발전소를 파괴로부터 구원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소련 정부는 량국 간에 체결된 협정에 의하여 광대한 수리공사 사업과 광산 탐구 개발 사업들에 많은 기술자들을 파견하여 신생공화국의 부흥발전에 거대한 원조를 주고 있다.

량국 간에 체결된 협정에 의하여 상품 류통은 급속히 장성되고 있다. 쏘련과의 상품 류통은 협정 전 1946년부터 시작되어 해마다 확대·발전되었다. 량국 간의 무역 총액은 다음과 같다.

1946년에는 7천 4백 5만 2천 루불리, 1947년에는 1억 4천 8백 40만 루불리, 1948년에는 2억 6천 4백 95만 5천 루불리, 1949년에는 3억 4천 52만 5천 루불리로 되었다.

량국 간의 1946년도 무역 총액을 1백으로 기준한다면 1947년도에는 204%, 1948년도에는 357.7%, 1949년도에는 459.8%로 장성되었다.(p. 8)

량국 간에 체결된 협정에 의하여 1949년도에 대쏘무역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수입된 총물자 중에서 산업 부흥과 농촌경리발전에 가장 필요한 기계 자재 원료 등이 총수입액의 66.8%를 차지하는 바, 그 중에서 곡구 석탄 원료 공작기계 전기기계 농기구 기계류 등이 다수를 차지하며, 생활필수품은 총수입의 27.3%를 차지하는 바. 그 중에서 면직물 모직물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대쏘무역을 통하여 우리가 쏘련에 수출하는 생산품은 주로 금속제품 화학제품 광물류 전분 사과 감자 등이다. 이와 같이 지난 한 해 동안에 실시된 대쏘 무역을 통하여 우리가 쏘련으로부터 수입한 절대 다수의 물자들은 우리 민족경제의 기본골간인 산업을 부흥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며 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하게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쏘 량국 간에 체결된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쏘련 정부는 수다한 학자들과 박사들을 파견하여 우리의 민족간부 양성과 인민보건사업에 공헌하고 있으며, 수다한 교과서 교수제강 실험기구들을 보내여 우리의 대학들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으며, 각종의 약품과 병

기구 시설들을 보내여 인민보건사업에 기여하고 있다. 공화국 북반부의 각 대학들에는 30여명의 쏘련 학자들이 우리의 민족 간부들을 양성하여 주고 있으며, 각종 병원들에서는 10여명의 박사들이 인민보건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쏘련 정부는 지난 해에 공화국 북반부 각지에 설치되었던 6백 30여대의 침대 수를 가진 15개의 적십자병원들을 그 시설 전부와 약품 전부를 합하여 무상으로 공화국 정부에 양도하여 주었다.

이 협정에 의하여 조쏘 량국 간의 문화교류도 급속히 발전되고 있다. 지난 해에 쏘련 정부는 우리의 민족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적지않은 수효의 전문가들을 우리에게 파견하여 우리의 민족예술발전에 원조를 주었으며, 문화사절단을 파견하여 선진 쏘련예술들을 광범한 인민대중에게 보여 주었다.(p. 9)

다른 방면으로 공화국 정부는 수차에 걸친 대표단들을 쏘련에 파견하여 쏘련의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성과들을 견학하게 하였으며, 각종 기술자들을 파견하여 쏘련에서 선진기술 강습을 받게 하며, 수백여명의 류학생들을 쏘련 대학들에 파견하여 선진과학을 습득케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쏘련이 인민민주주의 제 국가들과 체결한 협정들과 같이 조쏘 량국 간에 체결된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들은 대소 국가들 간에 맺어진 친선적이며 동등적 원칙에 립각한 새로운 협조의 모범으로 되는 것이다. 제국주의 강대국들과 약소국가들 간에는 이러한 동등적 친선적 협정이 있을 수 없다. 제국주의 강대국가들이 약소국가들에 강요하는 온갖 협정들은 그 어느 것을 불론하고 모두 불평등적이며, 략탈적이며, 침략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 제국주의자들의 지배하에 있는 마샬화된 서유롭빠 제국들에서와 우리 조국 남반부에서는 날이 갈수록 경제가 파탄되어 가고 있다. 쏘련과의 협조와 호상관계에 립각한 인민민주주의 제국가들과 우리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건설의 각 분야에서 거대한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 위대한 쏘련의 시종일관한 원조와 지지를 받는 우리 공화국의 민족경제는 부단히 장성되고 있다. 만일 1946년도

공업생산고를 1백으로 한다면 1947년도에는 189.3%, 1948년에는 263.3%, 1949년에는 377.1%로 장성되었다. 기계생산량과 경공업생산량은 별써 전쟁 전 수준을 초과달성하였는 바, 1944년에 비하여 기계생산은 246.9%, 경공업은 152.7%로 각각 장성되었다. 로동생산물은 1946년에 비하여 1947년에는 170.7%, 1948년에는 235.8%, 1949년에는 283.4%로 장성되었다. (p. 10)

이와같이 조쏘 량국 간에 체결된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1949년~1950년도의 공화국 북반부 인민경제계획의 첫 해의 예정 수자는 성과 있게 실천되었다. 조쏘 량국 간에 체결된 협정과 위대한 쏘련이 조선 인민에게 주는 진정한 원조의 결과는 실생활에서 이렇게 표현되었다.

우리 조국 남반부에 진주한 미 제국주의자들은 소위 경제적 원조라는 미명하에서 우리 조국 남반부를 월가의 주인들의 잉여상품의 판매시장으로 전변시키고 있으며, 우리 조국의 자원을 략탈하여 가고 있으며, 우리 민족경제를 파산시키는 정책을 로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4년 동안이나 미국의 조선에 대한 '원조'에 대하여 떠들어치고 있으며, 남조선경제의 '부흥발전'에 대하여 떠들어치고 있다. 그러나 소위 '원조'에 대한 미국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갈수록 남조선의 경제는 점점 파탄되어 가고 있으며 인민대중의 생활은 더 비참한 처지에 령락되어 가고 있다. 미국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위 '경제원조'가 남조선경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하는 것은 다음의 몇가지 수자들이 말하여 주고 있다. 1943년도 남조선 전체 기업소 수를 1백으로 한다면 1946년에는 기업소 총수가 52%까지 축소되었으며, 1947년에는 45%, 1948년에는 37%, 1949년 상반기에는 36%까지 축소되었다. 민족경제의 이러한 파탄은 산업생산을 저하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남조선의 기계생산은 1945년 해방 직후에 비하여 1949년에는 5%, 운수기계생산은 8%, 농기계생산은 9%, 시멘트생산은 17%, 가장 발달되었다고 하는 방직공업은 13%까지 축소되었다. 농촌경리발전에 있어서도 미국 사람들이 떠드는 소위 '원조'의 결과

는 이러한 비참한 사태를 초래하였다.(p. 11) 남조선의 경지면적은 전쟁 전에 비하여 1945년에는 87.9%, 1946년에는 80.8%, 1947년에는 69.7%, 1948년에는 66%, 1949년에는 55%까지 축소되었다. 미국 사람들의 '원조'의 결과에 조성된 이러한 비참한 사태는 남조선의 물가를 전쟁 전에 비하여 1946년에는 134~162배, 1947년에는 402배, 1948년에는 732~818배, 1949년에는 821~1,000배까지 폭등시키었다.

이와 같이 미국 사람들이 소위 '경제적 원조'라는 미명하에서 야수적 략탈정책을 실행한 결과에 오늘 우리 조국 남반부는 파산과 기근과 무직업의 지대로 전변되었다. 이와 같이 미국 사람들이 떠드는 이러한 '경제 원조'가 앞으로 더 계속된다면 우리 조국 남반부가 어떠한 처지에 놓이게 되리라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명백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체 조선 인민들은 조선에 대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음흉한 식민지예속화정책과 그 주구 리승만 매국 역도들의 반역적 죄악을 반대하여 구국투쟁에 총궐기하고 있는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다.

남북 조선에 조성된 현 정치·경제 정세는 전체 조선 인민으로 하여금 날이 갈수록 위대한 쏘련이 조선 인민에게 주는 진정한 원조의 심오한 의의를 더욱 더욱 인식하게 하며, 오직 쏘련과의 친선의 강화만이 우리 조국의 무한한 번영과 장래발전을 보장하리라는 것을 더욱 더 인식하게 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은 전 세계의 자유애호 인민들과의 평화와 협조의 정신으로 관통되었다. 이 정책은 전 세계의 항구한 평화와 민주주의적 원칙과 대소 민족의 동등권과 국제적 협조를 위한 투쟁이며, 위대한 쏘련과의 친선강화를 위한 투쟁이다.

위대한 쏘련과의 친선강화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초로 된다. 미 제국주의자들을 서두로 한 국제반동세력과의 투쟁에서 민주주의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조선 인민을 위대한 쏘련의 형제적 성원과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 지지와 성원 속에서 자기의 승리에 대하여 무한한 력량을 고무·추동하고 있다.(p. 12)

조선 인민은 위대한 쏘련을 자기의 가장 믿음성 있는 동맹자로, 가장 친근한 벗으로, 또는 우리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존중하는 진정한 원조자로 보고 있다. 쏘련의 외교가들은 쏘·미·영 모쓰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미·영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조선의 독립과 자유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쏘·미 공동위원회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 예속화정책을 반대하여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쏘련의 외교가들은 유엔 총회에서 조선 인민의 권리와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여 투쟁하였으며, 미 제국주의자들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 예속화정책과 그의 주구 '유엔조선위원단'의 창설을 반대하여 투쟁하였으며, 그를 폭이꼬트하였다. 위대한 쏘련 정부는 남조선에 리승만 단독괴뢰정부가 수립된 후 남북 조선의 총선거를 통하여 우리 조국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선포되고, 공화국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우리 공화국을 즉시 승인하고 우리 조국 북반부에서 자기 군대를 단독적으로 철거함으로써 조선 인민의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수호하였다.

이와 같이 위대한 쏘련 정부는 조선문제의 해결을 위한 각 계단의 투쟁에서와 조선 인민에게 주는 사심 없는 진정한 원조에서 표현한 온갖 실제적 행동을 통하여 조선 인민의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존중하며 통일적 민주주의 독립국가 건설을 위하여 투쟁한다는 것을 조선 인민에게 일층 더 명백히 보여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조선 인민들은 위대한 쏘련과의 영원불멸의 친선강화는 조선 인민의 독립의 담보로 되며, 우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한한 번영과 발전의 담보로 되며, 이 친선의 강화에서만이 통일적 민주주의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점점 더 심오하게 각오하고 있다.(p. 13)

조쏘 량국간의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1주년을 기념하면서, 전체 조선 인민들은 량국 인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극동과 전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량국 간의 친선을 일층 강화할 굳은 결의를 또다시 표명하고 있다. 위대한 쏘련 인민과 해방된 조선 인민들과의 간에

해방과 원조에서 맺어진 이 영원불멸의 친선의 강화는 국제민주진영을 일층 강화하게 할 것이며,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새 전쟁 방화자들을 반대하는 투쟁 사업에 고귀한 공헌으로 되게 될 것이다.(p. 14) (출전 : 『인민』, 1950년 3월호, 제5권 제3호, pp. 3~14)

〈부록 6〉 조쏘문화협회 함흥지부 편찬. 『해방후의 조선 : 쏘련 신문 논설집』. 함흥. 1946년 8월 10일. 122 pp. +ii.

이 책은 8·15 1주년을 기념해 출판됐다. 함흥인쇄소에서 인쇄됐으며 국한문 혼용이나 한문이 압도적으로 많다. ①「조선의 봄」, ②「모스크바 3국외상회의의 조선문제에 관한 결정 경위」, ③「인민위원들은 진정한 민주정권이다」, ④「부흥도상의 조선」, ⑤「활발한 북조선 문맹퇴치운동」, ⑥「북조선인민이 개척한 자유신생활에 대하여」, ⑦「해방된 努力」, ⑧「조선인민의 지배를 憧望하는 자들」, ⑨「모란봉」, ⑩「붉은 군대는 조선인민을 해방시킨 군대」, ⑪「붉은 군대는 조선인민에게 모국어를 다시 찾아 주었다」, ⑫「일본통치 하의 조선과 해방 이후의 조선 현세」, ⑬「북조선에 진주한 한 붉은 병사의 인상 수기」, ⑭「서울에서 진행된 쏘미공동위원회 사업에 대하여」, ⑮「조선임시정부의 창설에 대한 문제에 관하여」, ⑯「북조선의 정세」, ⑰「해방 후 발전하는 조선민족의 예술」 등등 열 일곱 편의 글을 묶었다.

이 책 전체에 일관되게 흐르는 주장은 ① 소련이 조선의 진정한 해방자이며 조선사람의 운명을 조선사람에 맡기고 있고 ② 소련의 북조선 점령과 더불어 북조선은 발전하고 있으나 ③ 미국의 남조선 점령은 미국의 식민지정책의 하나로 취해졌다는 점이다.

이 책의 한 가지 문제점은 러시아어로부터의 번역 문장이 말끔하지가 못해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또 그 출전을 밝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1년의 북한을 이해하고 또 소련의 북한관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크게 소용되는 자료이다.

〈부록 7〉 「북조선에 진주한 한 붉은 병사의 인상 수기」

도시에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더욱 더 많은 사람이 노상에 넘치는 것을 본다. 그들은 큰 상자나 보따리를 등에 지고 다닌다. 또 조선부인네들은 무거운 짐짝 외에 어린애들을 업고 있다. 어린애는 조선부인네들이 일시라도 곁에서 떠여 놓지 않는다.

우리는 15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조선에서 비교적 대도시인 함흥 근방에 이르를 것이다. 함흥은 함경남도 중심지로 벌써 열 한 번이나 일본인 도지사가 뒤를 이어 갈아 들어서 전도를 통치한 것이다. 조선의 온갖 도시가 그러하려니와 함흥도 그 외모를 본다면 구라파 도시와는 비슷치 않다. 조그맣고 장난감같은 집들이 처마를 물고 늘어 서 있다. 그 건축양식은 가지각색이다. 구라파식도 있고 일본식이 있는가 하면 중국식 가옥도 있다.

여기는 주로 일본인민만이 사는 가장 큰 가로이다. 그 가로와 교차하고 있는 거리는 약간 빈약하지만 여전히 귀족적 기품을 잃지 않은 가로이다. 두 개의 대로가 합하고 있는 십자거리엔 광장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곳엔 많은 사람들이 끓고 있다. 이 곳에는 마치 성류소 시장 산보길 휴게소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다. 상인들은 노상에 웅크리고 앉아 야채며 과실을 늘어 놓고 오고가는 사람들에게 직접 팔고 있다. 대로를 꽉 채우고 있는 것은 가지각색의 서로 조화되지 않은 군중이다. 일본인들은 전날에 그 당당하던 세력을 잃어버리고 양복을 입은 채 힘 없이 거리를 걷고 있다.(시내만 하여도 아직 2만 5천의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다.) 조선 상인들도 반구라파식 복장을 입고 다닌다. 조선사람들은 대개 방어용 복장으로 몸을 단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본인이 노동자며 학생용으로 안출한 양식이다. 일본여성은 선명한 빛깔의 기모노를 입고 다니는데 조선부인은 대

개가 샛하얀 의상을 입고 있다. 짧은 저고리 긴 바지와 치마—이것을 흰 다란 천으로 만든다—백색의상은 조선 민중이 사시사철 애용하는 것이다. 그 의상으로 쉽게 조선 사람임을 알 수 있다. 흑색의상으로 몸을 단속한 사람은 중국인이다. 흔히 양식 성장을 한 일본인으로부터 분간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참말 일본인은 조선 사람이 흰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그 효과는 없었다. 이 한 가지 예로도 알겠지만 조선 민중은 일본 제국주의의 강압적 동화정책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항상 조상의 전통을 소중히 지키며 민족적 특색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다. 주요 가로 상에는 조그마한 것이나마 많고 많은 상점이 늘어서 있다. 함흥은 상업도시의 온갖 시민이 팔고 또 사고 있다. 그 상업이란 것도 빈약하여 너무나 소규모이다. 일본인은 주민의 필요를 채울 만한 현지 공업을 건설하지 않은 것이다. 지방에서 나는 원료를 몽땅 자기 본토의 공업용으로 수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본 때문이다.

그러나 함흥에서 5개소의 커다란 양주공장이 있는데 여기서는 조선 사람을 위한 술이 대량으로 제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 한 예로도 일본의 조선통치정책의 본체를 가히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가로에는 수 개의 순구라파식 건물이 늘어 서 있는데 그 곳에는 일본군 당국자가 살고 있었으며 군용전 연습장 창고관 건물들이 늘어 서 있는 것이다. 이곳 역시 시내이다. 이 일곽을 나서면 시의 대부분은 커다란 촌락과 흡사하다. 그 곳에는 좁고 꼬부라진 골목골목이 이리저리로 달리고 있으며 상상할 수도 없으리만큼 좁은 골목에 조선인의 가옥이, 직공이며 노동자의 오막살이집이 꽉 들어 차고 있다. 이르는 곳마다 진흙이요 그 불결한 속에 굶주린 어린애들이 버글거리고 있는 것이다.

조선이라면 우리는 항상 뒤떨어진 나라로 상상하여 왔다. 그러나 조선은 자기의 독특한 비상(非常)이 오래인 문화를 가지고 자기의 언어 글 조차 못하나 문학 음악을 가지고 있다. 풍부한 창의성을 가진 민족이 조선 사람인 것이다. 고대의 조선엔 찬란한 문화의 꽃이 피었으며 서울에 '천

황'의 사자인 일본인 조선총독이 부임하여 오기 전까지는 이 문화의 꽃에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품어나왔던 것이다.

그 때부터 일본인 문인 기자 검열관 음악가 교사들의 전 관심은 조선사람으로 하여금 온갖 민족적인 것과 조선자체를 망각시켜 버리게 하자는 한 점에 집중되었던 것이다. 우리들이 함흥에 도착하기 조금 전에 도민을 위하여 신문을 발행하자는 계획이 서 있었다. 그러나 인쇄소에는 조선 문자의 활자가 없었다. 일본인은 이미 10년 전에 그것을 없애 버린 것이다. 학교에서는 조선어의 사용이 금지되었다.(가정에서도 일어를 사용하라고 강요했다.) 조선 사람에 대하여 일본 신문을 요구하였다. 자기 자신의 모국어를 다시금 배우는 조선 젊은이가 종종 눈에 띄운다. 일본인은 함흥의 각 학교를 공허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조선말 책이 없다. 교과서가 없다. 조선사람교사가 태반 부족이다. 전부가 침략 당하고 온갖 것이 일본화한 것이다. 책방은 일본인 여망가의 생활에서 취재한 교훈소설로 홍수가 났다. 조선의 유명한 옛 문인들의 저서를 찾아 내버리고 별 애를 다 썼으나 허사로 돌아 갔다. 일본인은 그들의 저서를 새로운 조선문학작품과 함께 모조리 압수해 버린 것이다.

금압 당한 젊은 조선문학은 로문학 고전과 쏘련문학의 영향을 대단히 강렬하게 받았던 것이다. 조선의 인텔리들은, 특히 북조선 도시의 그들은 뚤쓰토이 투르게네프 꼬리끼의 저서를 잘 알고 있으며 지금도 그것을 회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조선 내 여행에 있어서 로씨야사람 전체에 대한 조선사람의 천진난만하면서도 항상 진정에서 나온 관심을 목격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한 관심은 어느 옛적 노일전쟁 때의 절반이나 잊어버린 회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한 예를 든다면 조선사람은 그네들에게 어설프리 구전되어 온 옛날의 로군병사의 용어 가요 무용 같은 것을 많이 외어 두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 미숙한 배우들이 출연한 어느 연극에 있어서 배우들은 로씨야사람 군중을 유쾌하게 하기 위하여 대담하게도 '꼬파까'춤(소로씨야의 무도)을 추는 것이다. 이런 것 전부 그

리고 로씨야부도 형사용어 또 각지에 퍼져 있는 '우라'—(이것은 환영의 뜻이다)—이런 것은 전부 조선사람만이 기억할 수 있는 로씨야는 오직 그것 뿐이다.

새로운 쏘베트로씨야, 지금 조선을 구원하러 오고 그를 일본의 철쇄에서 최후적으로 해방하여 놓은 새로운 쏘베트는 피해방민족의 영원한 감사를 받을 것이다. 우리들은 조선사람이 귀로 들은 로어 단어를 일일이 목책(目册)에 적어넣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들은 미운 일본의 말을 잊어 버리고 친애하는 로씨야의 말을 배우려고 애쓰는 것이다.

전기(前記) 연극회에 있어서는 우리는 일본이 조선예술의 민족적 특징을 말살하여 버리려고 얼마나 서둘렀으며 또 조선예술이 다년간 '천황'의 위세 밑에 있어 얼마나 위배되었던가 하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었다. 참말 조선사람들은 약간의 특수한 민족적 악기를 보지하고 있었다. 경쾌한 조선춤은 관중 앞에 고대의 일본인에게 금지받았던 민족적 축연을 부활시켰다. '독립가'—조선 독립의 노래이다—소리에 조선사람들은 처음 깜짝 놀란듯이 주위를 두리번두리번 살펴 보는 것이었다. 그리고서 기쁜듯이 미소를 띄운다. 일본통치 하에 있어 이 노래를 부른다면 당장 감옥이다. 이러한 무용회 음악회는 조선민족의 예술이 갱생의 길에 들어 선 첫 발자국이다. 그것은 청진에서는 쏘련 육해군이 동(同) 시를 해방한 직후에 개최되었다. 2주일간을 경과한 후 함흥에서는 조선소년을 위하여 사범학교의 문이 열리었다. 이것 역시 민족교육 발전의 길에서 디딘 첫 발자국이다.

조선 민족은 그 아래 있는 독립생활의 길에 들어 있어 이와 같은 첫 발자국을 많이 내디뎌야 하겠다. 일본해반(海畔)에 있는 원산항의 가장 아름다운 한 쪽에는 수 년 전부터 '천황'의 궁전이 건설되고 있었다. '대일본'의 황제는 자신이 조선반도에 내림하여 그의 '신적' 군림으로 조선반도 위에다 일본 통치의 인(印)을 불멸히 찍어 놓으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 궁전은 다 되지 못하였다. '천황'이 이제 조선에 나타날 날은 영구히 오지 않을 것이다.

그의 사자인 지사네들은 가지각색의 운명에 빠져 버렸다. 예를 들면 도주하려던 함경남도의 지사 기시는 지금 옥 속에 있다. 함경북도 지사 와 다나베도 그렇다. 그러나 '천황'과 그의 사자들의 유산이 남아 있다. 이 유산은 카인의 印, 오욕의 印과도 같이 조선의 각 도시와 촌락에 그냥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한 것에서 해방되며 국가의 민족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갱생의 길을 전설히 스타트하는 것——이것이 즉 오늘의 조선민족이 주야로 염두에서 떠나 보내서는 안 되는 또 당장에 착수하려고 하는 사업인 것이다. (출전 : 조쏘문화협회 함흥지부 편찬, 『해방 후의 조선 : 쏘련신문 논설집』, 함흥, 1946년 8월, pp. 8~86 전문)

〈부록 8〉 브·쓰몰렌쓰끼, 「조선임시인민정부의 창설에 대한 문제에 관하여」

비상히 복잡한 환경에서 조선 국가의 운명이 해결된다. 조선의 민주정체와 진실한 독립의 원쑤들은 조선인민이 35년간 일본 압박의 기반 하에서 영영 해방하며 대다수의 인민이 원하는 생활을 창설하려는 것을 방해하려고 전력을 다하여 애쓰고 있다. 조선인민은 자기의 숙망과 기세를 붉은 군대가 조선을 해방시킨 첫 날에 벌써 아주 확정하게 표현하였다. 민주주의 독립국을 창설하려는 위대한 목적은 전 조선인민의 무쌍한 정치적 열성을 실천화하였다. 비밀리에서 나온 대중적 민주주의 단체들이 발생하였다. 조선의 인민당과 공산당은 국내에서 왜놈들과 그들의 주구들을 완전히 숙청하기 위한 인민운동을 지도하였다. 여러 기업소 내에 조직한 노동위원회는 기업소를 왜놈들이 파괴하지 못하게 방위하였고 생산을 정돈하였다. 도시와 농촌들에는 지방의 새 주권 조직을 부담한 인민위원회를 창설하였다. 이 발족은 쏘련군이 들어 온 북조선 또는 남조선의 조선민중들을 포괄하였다. 남조선에는 인민위원회가 미국군대가 상륙하기 오래 전에 발생하였다. 극동에 관한 미국전문가 쓰노우씨의 성명에 의하면 1945

년 8월 31일에 이르러 남조선 1백 45개소의 도시와 촌락에 인민위원회가 선거되었었다. 이 인민위원회들은 즉시 일본경찰을 무장해제시키면서 정치범을 석방시키며 왜놈들과 민족반역자들의 대공업과 토지소유를 몰수하는 일에 착수하였었다. 1945년 9월 6일에 서울에서 인민위원회와 사회단체 대표들의 전 조선대회가 소집되었는데 이 대회는 조선인민공화국의 창립을 선언하고 그의 최고기관——중앙인민위원회를 선거하였다. 이 중앙인민위원회는 결정적 민주주의 개혁의 정강을 가지고 출현하였다. 조선인민이 자기의 의지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된 시초는 이러하였다.

왜놈들과 협력하여 조선노력대중을 착취하여 자기 개인의 생활을 족하게 한 조선의 자주들과 자본가들이 그 때에는 민주주의적 해방운동을 반대하여 공연히 진출하려고 결심하지 못하였다. 그 후 얼마 지나 남조선에서 미국군정이 실시하기 시작한 정책은 조선의 반동가들의 의기를 돋구어 주었다.

미군정은 인민공화국을 부인하였다. 그러면서도 해방 전 일본 기관은 전부 다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였다. 오직 그것을 반대하는 맹렬한 민중시위운동이 있은 후에야 일본총독 阿部가 퇴직되어 일본으로 전너 보내지게 되었는데 그는 거기에서 전쟁범죄자로 체포를 당하였다. 구축 당한 일본 관리들 대신에 군정기관으로 몇 명의 친일파 조선인 대지주 풍장주 은행주들을 고문관으로 청빙하였다. 이들에게 미군정은 국사에 근무할 조선인들의 선택사업을 위임하였다. 이 새 보호자들의 날개 밑에서 소생한 반동자들은 정치적 무대에까지 출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 '고문관'들과 그들의 보조자들은 독립옹호자와 민주정체옹호자의 의복을 입고 보니 아무리 가장을 하였으나 (그들은 심지어 자기의 당을 '민주당'이라고까지 창하였다) 반동적 정객들이 대중의 인기를 끌게 하려는 시도는 실패에 돌아가고 말았다. 인민들은 그들의 진실한 면목을 잘 보았다. 그렇게 되니 그들을 방조하기 위하여 미국과 중국에 가 살던 조선인 망명자——조선인민과 오랫 동안 절연되어 있었고 그러나 주권을 장악하려고 갈망하는 김구와 이승만 등 인물들을 조선으로 '수입'하여 왔다.

그 중 어떤 인물들은 벌써 조선 租借에 관심을 가진 모 미국상사의 지시를 받으려고 약속까지 하였던 것이다.

조선독립의 반대자들과 외국 망명에서 귀국한 영수들은 서로 쉽게 약속하였다. 서울의 신문『민중일보』는 1945년 12월에 게재하기를 12월 3일 이승만의 사택에 17명의 조선 대금융자본가들이 모이었다.(그들의 성명을 열거하였다.) 이승만은 "조선독립국 창설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김구 정부는 재정상의 방조를 요구한다. 나는 여기 모인 여러분이 이에 필요한 방조를 후원할 것과 국가기본금 창설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요망한다"라고 성명하였다. 이 협의회의에서 金鴻亮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정위원회가 선거되었다. 그리고 '조선은행'에서 군정을 경유하여 2억원의 금액을 차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였다. 12월 4일에 진행된 위원회의 제2차 회의에서 위원들의 개인 자금으로 90만원을 모집하였다. 비록 김구 '정부'위원들이 공적으로는 개인의 자격으로 조선에 귀국하였지만 미국군정에서는 그들에게 '政事'를 계속할 가능을 제공하였고 서울에서 제일 훌륭한 건물들과 심지어 고정적 무장을 한 경비대까지 보장하여 주었다. 그와 동시에 인민위원회는 해산을 당하였고 이 인민위원회들의 건물들도 빼앗기게 되었다.

서울로부터 날마다 미국군정에서 반동정객들을 비호하며 좌익정당들과는 非神聖的 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에 대한 외국 출판계로부터의 보도들이 들어 오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전형적이 되는 것은『뉴 스테이트쓰맨 앤드 내이숀』이란 런던 잡지의 보도인데, 이 잡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 "미국군정은 조선에서 혹 정계인물들과 협력자 및 일본인들과 자기들이 협력한다는 사실을 비밀로 하지 않는다. 그들은 인민당당원들을 각종 중요한 직위에서 퇴직시킨다. 이 당은 광범한 민중의 지지를 받으며 조선인민의 반항운동 속에서 성장하였다." 한편 정부 '자문기관'은 민주주의 정당 우익(우익인 한국민주당이란 뜻 : 필자의 註)을 기초로 하여 형성되었는데 미국사람들이 보는 바 이 정부의 (자문위원의 : 필자의 추가) 중요 자격은 그의 반공산주의적 정책과 관련하여 그를 신임할 수 있다는 것

이다. 이런 환경에서 남조선에서 진실한 민주주의적 諸 정당과 단체의 발전이 극도로 곤란하며 정치적 투쟁이 인위적으로 복잡하여지며 첨예화하여지는 것은 이상하다 할 바가 아니다.

반동적 정당들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일으키는 정치적 내란과 함께 국가는 거대한 경제적 여러 난관을 체험하고 있다. 일본제국의 붕괴는 왜놈들이 조선을 무제한하고 계속적으로 약탈한 결과로서 빈궁화한 조선의 무서운 진상을 세계 앞에 드러 내 놓았다. 예컨대 조선의 품업은 기술자 인재들의 부족을 비상히 느끼고 있다. 자기경제를 회복시키며 발전시키기 위한 조선은 필요한 자본과 설비품 및 其他를 역시 가지지 못하였다. 이런 조건 하에서 조선에 독립을 즉시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조선을 외국의 자본에 또 다시 예속되게 하며 민주주의와 완강한 원쑤인 조선의 대지주들과 대자본가들의 후원을 받는 정치적 모험가들의 극소수가 주권을 장악하게 될 것은 명백한 일이다.

건실한 평화를 수립하려고 요망하는 동맹국들, 우선 조선과 국경을 인접하고 있는 쏘련은 조선이 또 다시 극동에서 전쟁 위험의 巢所로 변하는 것을 용허할 수 없었다. 쏘·미·영 3국 외상의 모스크바회의는 그 결정에 선언한 바와 같이 조선을 독립국으로 회복시키며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한 국가발전을 위한 조건들을 창설하며 장구한 일본제국주의의 악독한 결과들을 신속히 청산할 목적으로 조선임시정부를 창설할 필요를 지적하였다. 이 결정은 전폭적으로 조선인민의 성숙된 민족적 여러 요구에 적합된다. 조선임시정부 성립에 방조를 주며 해당한 대책들을 미리 강구하기 위하여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는 남조선에 주재한 미군사령부와 북조선에 주재한 쏘련군사령부의 대표들로써 공동위원회를 창설하기로 하였다. 이 공동위원회는 자기의 모든 의견을 작성할 때에 조선의 諸 민주주의정당과 諸 사회단체와 더불어 반드시 상의하여야 될 것이었다. 모스크바 3국외상회의 결정은 조선에 대한 쏘·미·영·중 4국의 후견에 대한 협약 작성을 역시 예견하였다. 그렇지만 최초의 미국의 안보다 다르게 후견기간을

연기시킬 권리가 없이 5년으로 국한하며, 이 후견제는 반드시 미국의 안에 있는 4개국의 특정 행정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조선인민의 민족적 이해를 반드시 보장할 조선임시정부의 그의 기관들을 경유하여 실천될 것임을 결정하였다.

조선인민은 모스크바회의의 결정을 대환영하는 시위운동으로 영접하였다. 그 후 민주주의적 민족전선에 단결된 북조선의 諸 민주주의정당과 단체, 그리고 남조선의 諸 민주주의정당과 단체들은 자기들이 모스크바 결정을 지지하는 것을 성명하였다. 오직 반민주주의적 분자들로써 성립한 자기의 고유한 정부를 수립하려고 예산한 극소수의 반동적 정당들만이 자기들의 계획파탄을 의미한 모스크바결정을 반대하여 나섰다. 모스크바결정의 추이에서 전개된 투쟁 行程에서 조선의 정치적 역량의 맹렬한 분열이 생기었다. 일방으로는 조선의 민주주의적 재건을 반대하여, 또한 이러한 재건을 목적한 모스크바결정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반동적 정당들의 진영이 형성되었다. 타방으로는 광범한 민중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민주주의적 독립국 창설에 대한 자기의 희망을 쏘·미·영 공동위원회에서 모스크바결정을 성과 있게 실행하는 것과 결합시키는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의 민주주의적 민족전선이 長成되며 견고하여졌다.

모스크바 3국외상회의 결정에 기초하여 조직된 쏘미공동위원회는 1946년 3월 20일 서울에서 그 사업에 착수하였다. 공동위원회의 목적과 과업이 모스크바결정 제2항과 제3항에 명백히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위원회의 제1차 회의에서 쏘련대표와 미국대표 간에 위원회의 사업과 諸 문제의 해결절차에 대한 강황한 토론이 전개되었다. 미국 대표는 실지에서 공동위원회와 조선의 諸 민주주의정당과 諸 단체와의 직접상의를 대신하여야 할 '협의위원회'를 창설하며 조선임시정부가 창설되기 전에, 즉 다시 말하면 조선사람들을 직접 참가시키는 일이 없이 조선의 경제적 및 정치적 연합을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다. 쏘련대표단은 이 의견을 결정적으로 거부하였다. 여러가지 토론들이 있은 후 공동위원회는 모스크바회의

의 결정에 엄격히 적합되게 소련대표단이 제의한 사업의 절차를 채택하였다. 공동위원회 사업의 첫 단계에는 민주주의적 조선임시정부의 수립에 관계되는 문제를 정밀하게 강구하게 되었다. 오랫 동안 토론이 계속된 후, 양국대표단 간에는 4월 17일에 조선의 諸 민주주의적 정당들과 諸 사회단체들과의 상의조건과 절차에 대한 문제에 관한 협약이 성립되었다. 쏘미공동위원회 콤뮤니케 제5호에 게재된 이 협약은 쏘미공동위원회가 자기의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 진실하게 민주주의적이며 모스크바회의결정을 지지하며 이 결정의 실행에 있어서 공동위원회에 방조를 표현할 준비에 대한 성명서에 서명하는 조선의 諸 민주주의적 정당과 諸 사회단체들과 상의할 것을 규정하였다. 민주주의적 민족전선에 가입한 북조선의 諸 민주주의정당과 諸 사회단체 그리고 남조선의 諸 민주주의정당과 諸 사회단체들은 공동위원회 콤뮤니케 제5호에 예견된 성명서에 서명하였다. 오직 남조선주둔 미군사령관 하지의 官附 자문기관으로 되는 '민주의원'에 연합된 남조선의 여러 정당과 단체들만이 모스크바회의 결정 지지에 대한 성명서에 서명을 반대하여 진출하였다.

그러나 미국대표단은 바로 이 정당들을 공동위원회의 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하지장관은 라디오를 통하여서와 출판물을 경유하여 여러가지 '해설적' 연설을 하였는데 그는 자기의 연설에서 모스크바 회의의 결정과 이상에서 지적한 4월 17일 협약의 의미를 곡해시키었다. 그는 조선의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들이 쏘미공동위원회와의 상의에 참가할 목적으로 성명서에 서명하는 것이 그들이 후견을 시인하거나 지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모스크바결정의 제3항은 만일 조선사람들이 강요한다면 아주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성명하였다. 하지중장의 이런 성명이 있은 후 우익 정당들은 조선정부가 성립된 후에 모스크바회의 결정 가운데 자기들에게 부적당한 부분을 반대할 기회를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성명하면서 공동위원회와의 상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성명서에 서명하기로 동의하였다.

쏘련대표단은 이런 성명을 만족하게 인정할 수가 없었으며 또한 모스크바회의 결정의 실행에 관한 자기의 사업에 있어서 이 결정의 지독한 반대자들과 상의하려는 데 동의할 수가 없었다. 그와 반대로 미국대표단은 우익정당들의 성명을 이용하여 그들을 공동위원회와의 상의를 위한 남조선 명부에 기입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모스크바의 결정의 지지를 위하여 항상 출현하는 수다한 대중적 민주주의정당과 단체들을 상의에 참가시키지 않기로 하였다. 미국대표단이 자기의 처지를 쏘련대표단에 押付시킬 수 없게 되니까 그는 협의에 대한 문제를 유산시키면서 조선의 경제적 연합에 대한 문제의 토의에 착수하자고 제의하였다. 쏘련대표단은 이 문제는 반드시 조선임시정부가 성립된 후 이 민주주의적 조선임시정부의 참가 하에서 해결될 것이며 공동위원회는 조선의 경제적 연합에 대한 문제에 착수할 정권을 위임받지 않았다는 데 기인하여 이 미국대표단의 의견을 거부하였다. 그러니 그 때에 미국대표단은 교섭을 중지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리하여 5월 9일에 공동위원회는 자기의 사업을 중지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쏘베트대표단이 서울에서 채 떠나기 전에 하지將官은 교섭의 파탄에 대한 잘못을 쏘베트대표단에 넘겨 씌우면서 공동위원회의 사업 중지에 대한 성명을 하였다. 하지씨는 자기의 성명에 마치 로씨야사람들이 조선사람들로부터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박탈하려고 한 것처럼 인정하였다. 더욱 확신시키기 위하여, 하지장관은 모스크바결정을 반대하며 선출한 단체들의 수효를, 美國圖에서 공동위원회에 제출한 앞에서 지적한 성명을 위하여는 겨우 20개의 정당과 단체들이 호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 수자로 즉 2백 13개로 정하였다. 에·쓰노우씨는 이 諸정당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 정당의 다수는 당이 아니라 상인조합이라고 썼다.

여기에서 지적하여야 될 것은 미군정청 명령서 제 55호에 의하면 세 명 이상의 인원을 연합시키는 구루빠(영어의 그룹에 해당하는 러시아어 : 필자의 註)라면 무엇이든지 당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정체에 대한

하지장관의 사상에 의하면, 조선인민의 이해관계와 하등의 공통점이 없는 활동을 하는 이 여러 정당의 영도자들은 반드시 조선임시정부의 창설에 참가하여야 될 것이나, 6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망라한 전조선노동조합연맹, 3백만 이상의 농민을 단결시킨 전조선농민동맹, 전조선여성동맹 같은 그런 대중적 인민단체들은 이 참가권을 반드시 상실하게 될 것이었다.

미국의 명부에는 이 단체들을 등록시키지 않았다. 그런데 민주주의적 민족전선의 이 모든 정당과 단체들은 대다수 인민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이것이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쓰노우씨도 확증한다. 『새터데이 이브닝 포스트』 잡지에서 쓰노우씨는 다음과 같이 썼다: "3개의 郡에서 미국군정은 비밀투표로 직접선거의 실행을 허가하였는데 인민공화국 연합에서 추천한 후보들이 압도적인 大數 투표로 피선되었다. 하지장관의 고문관 무데르부드박사는 자기가 보는 바에 의하면 지방자치위원회의 선거는 인민공화국 연합대표들로 하여금 정권을 잡게 할 것이 의심 없다고 나에게 말하였다." 이 실험은 다시 반복되지 않았다. 보는 바, 이 실험의 결과는 미국군정 행정간부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어찌하여 이만큼 신뢰 있는 실험을 실행한 후에도 하지장관은 사실을 반대하여 민주주의적 민족전선을 남조선의 정당 중 소수라고 말하며, 간판은 많으나 군중들 사이에 지지자들은 대단히 적은 이 모스크바결정의 반대자들을 다수라고 인정하는가? 쏘련을 반대하여 공개적으로 진출하며 조선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장애하는 반동적 주동자들을 조선정부에 기어이 引入시키며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조선을 미국의 영향 하에 복종시키려는 것이 민주정체의 옹호에 대한 말공부들로 가장한 조선주재 미국대표들의 실제적 목적이다. 이 목적이 민주주의 전체나 모스크바결정이나 조선의 민족적 이해관계와도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 것은 아주 명백한 일이다. 쏘련은 조선이 참으로 민주주의적 독립국가가 되며, 침략주의적 세력이 조선으로 하여금 우리 국가를 침범하기 위한 근거지 연병장으로 또 다시 이용할 수 없게 하는 데 사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평화를 애호하며 諸 연합국들과 친선적 관계를 가지는 민주주의적 조선국을 창설하는 유일한 담보로 되는 것은 모스크바 3국외상회의에서 쏘·미·영 3국이 위탁한 의무들을 꾸준하게 준수하는 것이다. 즉 이 원칙을 쏘미공동위원회에서 쏘베트대표단은 철저하게 주장하였다. (출전 : 조쏘문화협회 함흥지부 편찬, 『해방 후의 조선 : 쏘련신문 논설집』, 함흥, 1946년 8월, pp. 99~110 전문)

〈부록 9〉 브·쓰몰렌쓰끼, 「북조선의 정세」

1945년 8월 말에 쏘베트군대는 일본관동군에 대한 작전을 발전시키면서 조선영토 내에 진주하였다. 많은 고난을 받고 있던 사람들은 장기간에 이르는 증오스런 일본의 압박에서 해방시켜 준 붉은 군대를 감격하며 맞이하였다. 조선의 도시와 농촌을 망라한 강력한 인민시위운동 가운데서 조선인민들은 위대한 벗 쏘베트연방에 대한 과거부터의 우정을 표시하였다.

일본이 항복한 순간에 있어서 연합국의 병력배치에 의하여 붉은 군대는 북조선에 있어서 항복조건 수행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쏘베트軍政權은 단시일간에 패배한 관동군의 잔도의 구속을 완료하였다. 일본의 官署官吏와 그의 지방내통자인 보조원들은 북조선의 국내생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방책의 실시는 조선인민과 쏘베트군정권 사이의 밀접한 협력을 보장하였다.

조선에서 일본인을 추방한 붉은 군대에 대한 조선사람들의 독특한 인식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조선인민들에게는 일본은 항상 참을 수 없는 약탈과 민족적 압박의 표상이었다는 것을 회상할 것 같으면 충분하다. 19(?)4년에 조선을 여행한 영국작가 가 미리돈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 "天皇之國의 사람들에 대한 극복할 수 없는 증오와 적개심은 수 세기 동안에 조선인 가운데 조성되었다."

노예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선사람들의 적개심은 남조선에서

미국군정청의 정책에 대하여 조선인이 정당한 분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으로써 설명할 수가 있다. 남조선에서는 일본의 모든 행정기관이 보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초기에 있어서는 일본의 阿部총독을 위시로 한 관청의 관리들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조선인민들의 후원을 받아 쏘베트군정청이 실시한 일본 지배의 잔재의 철저한 소탕은 조선인민의 광범한 층의 정치활동을 성장시키었다. 각종 민주주의정당과 단체의 활동이 발생하고 시작되었다. 공산당 민주당과 독립동맹(현재는 신민당)은 신 독립조선국가를 건설하는 사업에 밀접한 협력을 하고 있다. 수십만의 노동자를 결합시키고 있는 노동총동맹 농민조합 여성동맹 민주청년동맹 종교단체인 천도교 등과 같은 북조선의 노동계급과 농민 및 인텔리의 강력한 단체들이 그들과 함께 진출하고 있다. 민주당의 지도자의 한 사람인 洪箕疇는 북조선과 남조선의 정치상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말하였다: "남조선에는 통일전선이 없고 각 정당은 서로 싸우고 있다. 우리 북조선에 있어서는 그의 정세는 전연히 다른 것이다. 즉 민주주의 諸 정당과 諸 사회단체 사이에는 진정한 통일전선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북조선에 있어서도 반동배들은, 즉 지주 상인 그리고 각종의 반동분자들은 국가의 민주주의화를 그 시초에 있어서 방해하려고 하였었다. 반동배들은 민주주의자 또는 민족주의자의 가면을 쓰고서 정치기관 또는 자치단체에 가입하며 내부적으로 그것을 부패시키었다. 예를 들면, 그네들은 민주당의 지도기관에 한동안 숨어 있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하부기관은 반동적인 중앙위원회의 반인민적인 층을 철저히 반대하였다. 1946년 6월 2일의 제 I 회 당대회에서 조만식을 수령으로 하는 구 중앙위원회의 구성은 해방되었다. 그 이유는 "북조선의 통일인민전선을 약하게 하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명백한 반동행위 또는 모스크바회담의 결정을 반대투쟁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대회결정에서) 민주당 중앙위원회의 신 구성에는 비밀투표로써 선출된 저명한 조선의 활동가 최용건 강량욱 등이 들

어가게 되었다. 반동배를 고립시키면서 당은 북조선의 다른 민주역량과의 활동의 통일을 보장하였다.

반일민주주의의 모든 정당과 단체의 광범한 구루빠가 토대가 되어 북조선에서는 인민자치가 성장하고 강화되었다. 그는 그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일본이 항복한 그 당일에 연합국군대가 아직도 조선에 진주하기 전에 다수한 도시와 농촌에는 자연발생적으로 인민위원회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일본침략자에 대한 지하투쟁에 참가한 사람들이 그의 지도자가 되었고 인민들은 그들을 신뢰하였다. 위원회는 일본인과 그들의 보조원들을 조선에서 완전히 소탕하겠다는 대중의 운동을 지도하였다. 9월 8일에 각 지방의 인민위원회 대표자들은 서울에서 개최된 전조선대회에 모이어서 조선인민정부의 수립을 선언하였다. 공화국의 최고정권기관으로서 대회는 중앙인민위원회를 선거하였다. 그러나 9월 9일에 서울에 도착한 미국軍政權은 중앙인민위원회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행정기관의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남조선의 어떤 지방인민위원회는 해산되고 그의 활동은 금지를 당하였다.

오직 북조선에 있어서만 인민위원회는 진정한 민주주의 자치기관으로서 발전하였다. 그네들의 어깨 위에는 일본인이 파괴한 산업을 부흥시키고 긴요한 개혁을 실시하고 일본 지배의 해독을 청산할 무거운 임무가 지워 있다. 북조선의 인민위원회는 8개월 간 경과하는 동안에 독립민주국가를 건설하는 투쟁에 조선인민의 힘을 단결시키는 거대한 정치력으로 성장하였다. 조선의 애국자들은 일본인의 관리를 구축하고 자기의 힘으로써 자기의 나라의 국내활동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 유능한 지도자라는 것을 표시하였다.

1945년 10월부터 11월에 이르는 동안에 북조선에서는 군인민위원과 위원장의 선거가 실시되었다. 시군도 임시인민위원회가 일시에 확장되었다. 임시자치기관의 선거는 일반평등선거권을 기초로 하여 실시되었다. 20세에 달한 모든 공민은 성별 재산 신앙 교육과 민족의 여하를 막론하고 투

표권을 받았다. 단지 일본인만이 그의 권리를 상실하였다.

북조선에 있어서 행정권의 중앙기관은 북조선인민위원회다. 이것은 1946년 2월 9일 민주주의 諸 정당 사회단체 그리고 도군 인민위원회의 대표자대회에서 수립되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는 민족해방운동의 영웅 김일성장군이, 그의 부위원장으로서는 김두봉이가 만장일치로 선거되었다. 이 대회에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그리고 도군 인민위원회의 첫 정책인 강령이 작성되었다. 강령은 토지개혁의 실시, 공업기업과 운수기관의 부흥, 인민교육체제의 재조직, "조선문제에 관한 모스크바 외상회의의 결정은 조선인민의 근본적 이익에 대하여 참으로 정당하고 책임 있는 것이라는 점을 인민들에게 해설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이 강령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벌써 큰 성공을 얻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산업을 부흥시키고 근로대중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몇 개의 중대한 정책을 실행하였다. 대공장과 탄갱이 개방되어 진행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다수한 기업이 사업을 개시하였다. 8시간 노동이 실시되고 1일분 揭數量이 지정되었다. 노동자의 숙련정도와 생산분야에 의하여 차별을 두고 고정임금도 규정되었다. 학교 재판소 그리고 기타의 민주주의개혁도 실시된다. 신앙의 행사를 지낼 자유도 완전히 보장되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역사적 공적은 조선의 국내생활에 있어서 가장 약한 점이고 가장 복잡한 문제의 해결, 토지개혁의 실시이다. 일본인이 지배함으로써 조선의 농촌은 빈곤하여지고 영세하여졌다. 미국의 평론가 엘·메·오리버르는 조선의 토지 상태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토지에서 일도 하지 아니 하면서 일본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경작지의 55%를 소작인들이 경작하고 있으나 토지는 일본지주의 소유로 되어 있었다. 조선의 농민 5인 중에서 한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50년전에는 조선의 토지는 하나도 일본인의 수중에 들어 있지 아니하였다." 조선의 농민은 일본인 지주 뿐만 아니라 조선인 지주의 잔학한 搾取와 약탈

을 받고 있었다. 기생충적 생활형태가 조선인 지주를 일본인과 결탁시켰고 조선인 지주는 일본인이 조선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의 큰 근거가 되었고 해방시킨 뒤에는 반동파의 근거가 되었다.

북조선에 있어서의 토지 상태는 다음과 같은 숫자로서 그의 성격을 말할 수가 있다. 농가의 반수 이상이 평균 0.2헥토아르라는 극소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농가수의 1.8%밖에 되지않는 지주가 24.5%의 경작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지주 자신은 토지를 반갈이하지 않고 전 농가수의 80% 이상이나 되는 토지 없는 또는 토지 적은 농민에게 소작을 주었다. 소작지에 대하여 농민은 수확의 반수 내지 4분의 3을 支持하여야 되었었다. 조선 주민의 4분의 3이 농업을 하고 있는 이 곳에서 토지개혁이 필요함은 명백하고 논할 여지가 없다. 개혁을 실시함이 없이는 인민복지의 향상도 사회와 경제생활의 민주주의화도 아무 의미가 없다.

1946년 3월 5일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을 발표하였다. 일본인과 조선인지주 또는 도망한 민족반역자의 토지는 몰수하며 농민이 영구히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분여하였다. 개혁의 결과로서 농업 고용자 토지없는 농가 그리고 토지가 적은 농가는 9,636,570 말의 토지를 받게 되었다. 토지개혁의 실시는 조선농민들 중에 보지 못하는 감격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인민대회에서 농민과 노동자 및 진보적 인텔리는 개혁령을 채택한 임시인민위원회 그리고 일본의 기반에서 조선을 해방하여 준 붉은 군대에 대하여 뜨거운 감격을 표시하였다. 조선농민의 기분을 전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龍岡郡의 두 소작인 김묵우와 이연보의 다음과 같은 말이다: "지금까지는 보지 못하던 참다운 생활이 이제부터야 우리에게 돌아 왔다." 지주들은 개혁을 반대하려고 도모하였다. 토지개혁을 두려워한 것은 북조선의 지주층뿐이 아니었다. 남조선에 있어서도 그 時로 반동파의 나발통을 뚜드리었다. 악명이 높은 이승만은 라디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산공산당은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무상으로 농민들에게 분배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옳지 못하다

고 생각한다. 토지는 반드시 매수하여서 농민에게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이 반동자는 노골적으로 지주를 옹호하려고 하였다.

북조선에 있어서의 토지개혁의 성공은 남조선에 있어서 반동분자를 반드시 패망시키는 도움이 될 것이다. 조선에 관한 모스크바 외상회의의 결정을 실행함은 국내생산의 모든 부면을 일층 더 민주주의화하는 것을 보장할 것이다. (출전 : 『프라우다』, 1946년 5월 21일, 조쏘문화협회 함흥지부 편찬, 『해방 후의 조선 : 쏘련신문 논설집』, 함흥, 1946년 8월, 전문, pp. 111~118)

〈부록 10〉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조선문제에 관한 결정 경위」

미국군정의 관리 하에 있는 남부조선에서 발행된 반동적 조선신문들은 조선에 관한 미·쏘·영 3국 외상회의의 결정에 관하여 옳지 못한 보도를 전파하고 있다. 이 신문 보도들은 마치 조선의 후견제를 설치하려고 노력한 것은 쏘련이고 미국은 반대의 입장을 취한 것처럼 사태를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옳지 못한 보도를 반박하며 진실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따쓰통신은 다음과 같은 해설을 하는 전권이 부여되어 있다.

조선에 관한 문제는 미국대표단이 이니시아티브를 가지고 자기의 문제안을 제출하여 모스크바 3상회의의 심의에 제기하였던 것이다. 자기의 초안에 있어서 미국 정부는 주장하기를 조선에 있어서의 당면의 목표는 조선의 민족적 이익에 관계 있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즉 화폐 상업 교통 등에 관계하는 문제에 있어서 공동행동을 취하는 양군 사령관을 主班으로 하는 단일한 행정의 창건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동시에 이 초안에는 조선사람들은 군사령관에 부속한 행정관으로서 또는 협의자 또는 상담자로서 가능할 경우에 단일행정에 참가시킬 것을 말하였다. 초안에는 또한 단일행정을 제의하는 것은 자주조선정부를 수립할

목적으로 광범한 토대 위에 조선에 군정이 아닌 행정관리로 이행하는 과도적 조치로서 제의하는 것이며 4대국의 후견제는 조선의 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기관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와 아울러 가급적으로 속히 4대 관계국이 후견에 관한 협정을 기초로 하여 조선에 대한 단일행정을 실치하는 문제를 심의할 것을 제의하였다.

미국 초안은, 그 다음으로, 후견에 관한 협정에 관해, 그 가운데 특히 국제연합과 조선인민의 이름으로서 행동하는 쏘련 미국 영국 중국의 管理機關의 설치를 예상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 관리기관은 자주조선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조선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되는 집행권과 입법권 및 사법권을 행사하여야 된다. 자기의 정권과 기능을 관리기관은 최고위원과 관리기관에 참가하는 諸國家의 대표자들로써 구성되는 집행행위를 통하여서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미국초안에는 최고위원과 집행회의는 가급적으로 속히 조선인민의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진보를 보장하며 인민이 선거한 조선의 입법기관들과 적당한 재판제도를 설정하여 5개년 내에 자주조선정부를 수립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이 기간은 4국간의 협정에 의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시 5개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미국초안을 입수한 후 쏘베트대표단은 조선에 관한 결정의 자신의 초안을 3국 외상회의의 심의에 제출하였다. 쏘련초안을 연구한 후 미국대표단은 자기의 초안을 심의토부터 철회하고 사소한 정정을 하여 쏘련초안을 채택할 것을 제의하였다. 영국대표단도 이에 찬동하였다. 그 결과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채택된 조선에 관한 결정의 기초로 된 것은 쏘련초안이었다.

모스크바 3국외상회의에서 채택된 조선에 관한 결정은 1945년 12월 28일에 공표되었다. 이 결정은 최초의 미국제안과는 여러가지 본질적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첫째로 미국제안에는 조선에 후견을 실시하기 전 초기의 조선 내의 관리를 실현할 양군사령관을 수위로 한 통일행정을 조선에 창립하자고 제의

하였다. 이에 있어서 미국제안에 조선사람은 官吏者 및 고문관으로만 양군사령관의 행정기구에 참가함을 용허하였으며 이 기관에 조선민족정부수립은 전혀 고려에 넣지 않았다. 그러나 모스크바 3국외상회의 결정에는 쏘련정부의 제안에 의하여 남북조선에 관한 긴급한 행정관리문제들을 해결할 諸 방책이 지적되었다. 일반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지금 서울에서 진행되는 조선주둔 쏘미군 양사령부 대표들의 공동회의 소집은 벌써 이 긴급문제 해결의 시초를 세웠다. 그와 동시에 이 결정은 조선인민의 성숙된 민족적 요구에 적합한 조선민주주의적 임시정부수립의 긴급성을 시인하였으며 역시 조선에서 장기간 일본통치의 파괴적 잔재를 신속히 청산함에 협력할 것을 시인하였다.

둘째로, 미국제안에는 조선의 후견제를 인정하기 위하여 4개국(쏘련 미국 영국 중국)의 행정기관을 창설하되 그 행정기관은 반드시 최고정권위원과 이상에 지적한 4개국 대표들로 성립된 집행의회를 경유하여 자기의 정권과 임무를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다. 미국제안에는 조선에서 후견이 실시되는 동안 이 행정기관의 집행권 입법권 사법권을 위임할 것이 있는데, 그 제안에는 이 동안에도 조선임시정부 수립에 대하여는 언급하여 있지 않았다. 그러나 쏘련정부 제안에 의하여, 모스크바 3국외상회의에서 내린 결정에는 문제가 아주 달라졌다. 이 결정은 조선민족정부 수립을 연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쏘련과 미국 대표측에서 조선임시정부 수립에 협력할 것을 고려에 넣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쏘미공동위원회를 성립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 공동위원회는 반드시 조선의 민주주의적 諸 정당과 그리고 민주주의적 사회단체들과 협의하여 조선정부 수립을 촉진시킴에 방조할 것이다. 이와 같이 조선에 대한 4개국 후견은 조선임시정부와 그 기관들을 경유하여 실시될 것이니 이것은 반드시 조선인민의 민족적 이익을 보장할 것이다.

세째로, 미국제안에는 조선에 5년 기간의 후견을 설정하기로 제의하였으며 또 이 후견의 기한을 다시 5년 동안 더 연장할 수 있음을 용허하였

다. 이와 같이 조선에 대한 4개국의 후견은 10년 동안이나 계속될 수 있었다. 그런데 쏘련정부의 제의에 의한 3상회의 결정에는 단지 5년 동안으로 규정되었으니 이렇게 됨으로 더 장기간(다시 5년 동안 후견)이 계속될 것이 취소되었다.

이리하여 남조선 신문들의 상기 諸 보도는 사실의 진상을 왜곡하여 쏘련정부의 진실한 입장을 곡해하는 것이다. 보는 바와 같이, 남조선의 諸 신문은 옳지 못하고 양심 없는 정보의 희생물이 되고 말았다.(출전 : 『따쓰』통신 보도. 조쏘문화협회 함흥지부 편찬, 『해방후의 조선 : 쏘련신문 논설집』, 함흥, 1946년 8월 간행, pp. 9~15)

〈부록 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결정 제14호 : 북조선 지역에서 철거하는 쏘련군 환송 조직에 관한 결정서」

조선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의 요청을 접수하여 북조선 지역에서 자기 군대를 철거하기로 한 쏘련정부의 결정을 무한한 감사로써 환영한다. 위대한 쏘련 군대는 우리 조국강토에서 일제를 구축하고 우리 조선민족을 장구한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 예속 하에 있던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케 하기 위하여 정치 경제 문화 각 방면에서 성의 있는 원조를 다 하였다. 모쓰크바 3국외상회담의 조선문제에 관한 결정으로부터 조선문제에 관한 쏘미공동위원회 그리고 국련회의 등에서의 입장과 주장 또는 쏘미양군의 조선지역으로부터의 동시철퇴에 관한 제의, 북조선지역에 주둔하는 쏘련군대의 감소, 끝으로 북조선지역으로부터 자기 군대를 철거할 데 관한 결정 등에 이르기까지 쏘련정부는 시종여일하게 우리 조국으로 하여금 자주독립국가로 재생시키기 위한 진정한 정책으로 일관되어 있는 것이다.

쏘련군대의 성의 있는 원조를 받아 남북조선의 인민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조선최고인민회의를 선거하고 중앙정부를 수립하여 전 세계 자유애호민족

들의 대오에 동등한 일원으로 될 수 있는 기반을 닦았으며 당당한 제일보를 내딛게 되었다. 쏘련인민과 그의 수령 쓰딸린대원수 및 쏘련정부가 조선인민에게 끼친 은혜를 조선민족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해방과 형제적 원조에서 맺어진 조쏘인민의 친선을 강화함으로써 쏘베트연방과 견실한 정치적·경제적·문화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만이 우리 조선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과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이에 내각 제4차 회의는 쏘련군대가 우리 조국강토에서 떠나는 것을 전 민족적 감사와 충심으로써 환송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전 조선인민의 명의로 우리 민족의 진정한 해방자이며 은인인 쏘련인민과 쏘련군대와 그의 영도자 쓰딸린대원수에게 전체 인민들이 서명한 전 민족적 감사의 편지를 보내기로 한다.

2. 우리 조국을 일제의 통치에서 해방시켜 준 쏘련군 장병들의 공훈을 찬양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훈장과 奬章을 수여할 것을 조선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제의하기로 한다.

3. 1948년 10월 10일부터 10월 20일 사이에 쏘련군대를 환송하는 중앙 도 시 군 환송군중대회를 조직하며 기타 지역들에서는 농촌 직장 환송대회를 조직할 책임을 문화선전상 및 각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4. 철거하는 쏘련군대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역전마다 燃料 음료수 식사장 문화시설 등을 준비하며 각종 식료품선물들을 증정할 데 대한 조직을 10월 10일까지 완료할 책임을 교통상과 상업상 그리고 각 도 및 평양특별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특히 함북 아오지와 洪儀 등지에 휴식소(바라크)를 설비하여 前項의 준비를 10월 10일 이내로 완료할 책임을 함북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5. 쏘련군대에게 경의를 표하며 이를 성의 있게 환송하기 위하여 해방 후 각 지방에 건립된 해방탑 쏘련군대 진주기념탑 기념비 등을 10월 10일 이내로 깨끗이 청소정돈하며 앞으로 영구히 보존할 데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할 책임을 각 도 및 평양특별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위

임한다.

6. 조국강토에서 일제를 구축하는 쏘일전쟁에서 전몰한 쏘련군 장병 및 북조선의 민주건설을 백방으로 원조하는 중에 불행히 사망한 쏘련군 장병들의 영예를 찬양하며 앞으로 그들의 공훈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쏘련군대 공동묘지를 10월 10일 이내로 깨끗이 청소정돈하며 앞으로 영구히 보존할 데 대한 구체적 대책을 강구할 책임을 각급 인민위원회에 위임한다.

7. 쏘련군대의 업적들을 영원히 기념하며 보존하기 위하여 중앙박물관에 쏘련군실을 증설할 책임을 문화선전상에게 위임한다.

8. 쏘련군대의 은공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거리의 명칭을 쏘련인민과 쏘련군대의 영도자인 쓰딸린대원수의 이름을 붙여 '쓰딸린거리'라고 칭하기로 한다 : 평양특별시 평양역전으로부터 모란봉입구에 이르는 중심도로, 청진시 청진부두로부터 청진역전에 이르는 중심도로.

1948년 10월 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 상 김일성

문화선전상 許貞淑

평양시

(출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사무국, 『내각공보』, 제 1호, 1948년 12월 10일, pp.5~6 전문)

〈부록 12〉 해방 2주년기념 평양특별시민 경축대회에서의 꼬로뜨꼬브 축사

존경하는 여러분. 북조선에 주둔해 있는 쏘련군대사령부의 명의로서 일본제국주의 기반으로부터 조선이 해방된 2주년 기념일에 제하여 전 조선 인민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드리는 바 입니다. 파쇼독일의 격파는 인류를

전쟁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해 일본과 교전할 可能을 쏘련군대에게 주었읍니다. 지금부터 2년 전 즉 1945년 8월에 쏘련 군대는 일본 군대의 강경한 반항을 극복하면서 조선 땅에 들어섰읍니다. 조선 인민들은 감격에 넘치는 환호로써 자기의 해방자인 붉은 군대를 환영하였읍니다. 그 때부터 2년이 지났읍니다. 이 2년 간에 인민들은 자기 조국의 정치와 경제 및 문화 발전의 방면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읍니다. 북조선에서는 인민위원회의 지도 하에서 북조선인민들의 정치적 자유와 행복된 생활을 보장하여 주는 광범한 諸 민주주의적 개혁을 실시하였읍니다. 전반적 선거법과 노동법령, 남녀평등권법령, 산업·은행·국유화에 대한 법령을 실시하였으며 진실한 민주주의에 기초하여 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와 북조선인민회의를 창설하였으며 토지개혁을 실시한 결과에 72만 5천 호의 토지가 없거나 토지가 적은 농민들이 무상으로 1백만 정보 이상의 토지를 받았읍니다. 인민교육 방면에서 개혁을 실시한 결과에 각 학교들에서 조선어로 교수를 진행하며 학교 총수는 확장되었으며 학생 수가 증가되었읍니다. 이 諸 민주주의적 개혁은 조선인민의 영웅인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을 수위로 한 북조선의 국가 및 사회적 활동가 諸氏들의 직접 지휘 하에서 진행되었읍니다. 이 모든 성과는 조선인민들의 조선에 대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정확히 실천하며 위대한 쏘베트 국가의 끊임 없는 원조로 말미암아 달성하였읍니다. (pp. 273~274)

쏘련 군대는 조선 땅을 강점하며 그의 富源을 약탈할 목적으로 조선으로 들어 오지 아니하였읍니다. 쏘련 군대의 목적은 일본 약탈자로부터 조선 인민을 해방시키는 것이며, 조선의 민족산업과 운수와 농촌경제와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諸 대책을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며, 외국의 간섭을 받지 않는 진실한 민주주의공화국과 민주주의적 조선임시정부를 수립함으로써 멀지 않은 장래에 동등권을 가진 일원으로 聯合國成分(國際聯合에? : 필자의 註)에 가입하도록 최대의 정력을 다하여 조선인민들을 도우려는 것입니다. 쏘련 군대는 정당한 레닌-스탈린

적 평화정책의 원칙에 기초하여 어느 때든지 평화와 인민 간의 친선을 위하여 투쟁하며, 모든 민족적 압박과 그리고 약소인민들과 그 국가들을 정복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반대하면서 피압박인민들에게 자유와 독립을 부여하기 위해 투쟁하였읍니다. (pp. 274~275)

존경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서울에서 조선에 관한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에 기초하여 쏘미공동위원회가 자기 사업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쏘미공동위원회의 과업은 조선에 관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정확히 실천하는 기초 위에서 조선인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적합한 민주주의적 조선임시정부를 창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쏘미공동위원회는 사업의 行程에서 여러가지 난관에 봉착하였으며 그리고 쏘련대표단 주석 스띠꼬브대장의 성명에서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대표단과의 意見不同이 생겼읍니다. 나는 쏘련대표단이 전 조선인민들이 무한히 갈망하는 민주주의적 조선임시정부 수립에 있어서 모든 난관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바 입니다.

민주주의적 자유 조선 만세! 조쏘인민 친선 만세! 조선인민들의 해방자인 쏘련 군대 만세! 피압박인민의 위대한 수령이며 옹호자인 쏘베트동맹의 대원수 스탈린 만세! (pp. 275~276)

〈부록 13〉 8·15 해방 2주년기념 평양특별시민 경축대회에서의 북조선주둔 소련군 대표 로마넨꼬소장 축사

친애하는 公民 여러분!

쏘련군사령부의 명의와 쏘베트 군대의 명사 軍曹 하사관 장교 및 장군의 명의로서 일본의 압박으로부터 해방된 후 제2주년 기념일, 즉 조선인민의 위대한 명절을 맞이하여 전 조선인민 여러분에게 축하를 드리나이다. 지금으로부터 두 해 전인 1945년 8월 9일에 동맹국으로서의 자기의 의무

에 충실하며 전쟁을 속히 완료하고 오랫 동안 기대하던 평화를 보장함으로써 곤란에 처한 인류를 구하려는 쏘련은 히틀러 독일의 마지막 동맹자인 일본에 반대하여 전쟁을 시작하였읍니다. 이 때에 중국에 주둔하였던 육군의 힘 그리고 만주 및 조선에 있던 관동군을 신뢰한 일본제국주의는 어떠한 희생도 불구하고 전쟁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읍니다. 그리하여 매일 戰場에서는 인명희생과 파괴가 증가되었던 것입니다. 쏘련군이 이 전쟁에 참가한 것이 일본제국주의로 박멸하여 전쟁을 속히 완료함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이 되었음은 사실의 경과가 보여 준 바와 같았읍니다.

쏘련군은 만주와 조선에서 일본군에게 맹렬한 타격을 주었읍니다. 세계에서 백전백승을 자랑하던 일본군은 며칠 후에 섬멸되고 말았읍니다. 제국주의 일본은 자기의 패전을 자인하고 항복하였읍니다. 쏘련군은 일본군의 주력을 박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조선과 만주의 인민에게 해방을 주었읍니다. (pp. 276~277)

북조선에 진주한 쏘련군은 조선의 영토와 財源에 대하여 어떠한 침략적 목적도 추구하지 않았읍니다. 쏘련군은 일본강점자들을 박멸하고 조선인민을 해방시키는 것을 목적하였읍니다. 쏘련의 국가적 성격에 있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한다는 목적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피압박민족의 자립과 민족의 친선을 위해 투쟁한다는 목적이 있으며 오늘날에도 이 목적에 따라 투쟁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쏘련인민의 위대한 영도자 스탈린 대원수가 지도하는 쏘베트정부의 정책이며 동시에 북조선주둔 쏘련군사령부의 과거 2년 간의 정책이었읍니다. 북조선인민이 속히 자기자신들의 지방정권을 수립하여 정치생활과 경제생활 및 문화생활을 정상적으로 정리하며 가장 중요한 민주개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조하기 위하여 쏘련군사령관은 가능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노력해 왔읍니다. (pp. 277~278)

쏘련군의 힘으로 해방된 북조선인민은 전에 보지 못한 열정을 가지고 국가부흥사업에 착수하였읍니다. 인민 자신이 창조했으며 일반적·직접적·평등적·비밀 투표를 법정화한 선거에 의한 도·시·군·면·리 인민위원

회는 인민정권의 산 형태가 되었읍니다. 그것이 생명을 유지하고 실지 사업에 있어서 특별한 성공을 거둔 까닭은 인민위원회가 인민에게 의존하고 있고 인민이 인민위원회를 지지하는데 있읍니다. 인민위원회는 인민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상태를 근본적으로 개조하는 거대한 민주 개혁을 시행하였읍니다. 토지개혁은 북조선 농촌에서 봉건적 관계를 숙청하였읍니다. 토지 없는, 또는 토지 적은 농민 72만 5천 호는 토지를 무상으로 영원히 이용할 수 있는 分與을 받았읍니다. 세제개혁을 실시한 결과로 농민들은 국세 완납 이후에는 수확물을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완전한 주인공이 되었읍니다. 인민위원회의 법령으로써 산업·운수·체신·은행 및 문화기관을 국유화하여 인민들의 管理에 제공되었읍니다.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지도 아래서 인민은 산업·운수 복구에 지체없이 착수하였읍니다. 노동법령은 노동자와 사무원들에게 선진적 사회보험과 8시간 노동 및 노동보호를 보장하여 주었읍니다. 북조선에서의 민주주의의 가장 거대한 성과는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입니다. 이 법령은 여성들에 대한 봉건적 태도를 없이 하였으며 그들에게 민주 건설과 국가 관리에 참가할 가능성을 주었읍니다. (pp. 278~279)

이 모든 민주 개혁은 조선의 민주주의 국가 건설노선에 있어서의 가장 거대한 일보입니다. 이것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것은 민주 개혁이 인민의 이익을 완전히 반영하며 북조선 인민위원회와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주위에 집결한 전 인민의 지지를 받았으므로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북조선인민의 모든 성과는 큰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들은 전 세계의 식민지 인민들에게 커다란 진보적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과는 산업·농촌·경제·문화·과학·예술의 향상에 있어서 쏘련 인민이 북조선인민에게 항상 부여하였으며 현재도 부여하고 있는 원조가 있었으므로 가능하게 되었읍니다. 북조선 인민경제를 과거보다 향상시킨 점, 그리고 과학·문화·발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민족간부의 양성에 있어서도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읍니다. 민족적 영웅 김일성 장군의 지도를

받는 북조선 인민들은 북조선의 각급 인민위원회와 인민회의에 수 천명의 활동가를 내 보냈읍니다. 인민은 산업·운수·농업경제의 數多한 재능 있는 지도자들을 내 놓았읍니다. 광범히 조직된 학교와 강습회는 인민경제의 각 부문을 성공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수 천 명의 전문가들을 인민경제체에 내 놓았으며, 1947년도 인민경제의 부흥·발전의 예정 숫자를 달성하는 데 성공적 투쟁을 지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인 지도간부의 노동은 국가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생활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숙련되었다는 것을 표시하였읍니다.

현재 서울에서 쏘미공동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읍니다. 스띠꼬브 대장을 주석으로 하는 쏘베트 대표단은 조선인민의 근본적 이익을 반영하는 조선에 관한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의 실행을 강경히 주장하고 있읍니다. 쏘베트 대표단은 민주주의적 조선임시정부의 수립을 위하여 전력을 다 한다는 것을 조선인민은 신뢰하여도 좋을 것입니다. 북조선에서 실시한 민주주의적 개혁은 자유롭고 독립된 민주주의 조선을 위한 훌륭한 기반이 된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는 바 입니다. 전 조선인민 여러분에게 1947년 인민경제계획 완수에 새로운 성공이 있기를 기원하는 바 입니다. 자유롭고 독립한 조선인민 만세! 조선인민과 쏘베트인민의 친선 만세! 해방군인 쏘베트군대 만세! 조선인민의 친근한 벗인 스탈린 대원수 만세! (pp. 279~281)

〈부록 14〉 8·15해방 2주년을 맞으면서 8·15해방 2주년기념 평양특별시민 경축대회에서 행한 金策의 연설

해방된 북조선의 부모형제 여러분, 자유스런 민주 북조선의 동지 여러분!

오늘은 우리 조선민족의 자자손손이 잊지 못할 영원한 민족적 명절입니다. 오늘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의 성벽이며 세계 약소민족의 유일한 해방

자인 쏘련의 영웅적 군대가 우리 조선민족을 일본 제국주의의 철쇄에서 해방시켜 준 역사의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조선민족이 餓死와 학살과 착취와 멸망의 구렁이에서 자유와 행복과 민주의 광명한 길로 들어선 감격의 날입니다. 나는 오늘 이 민족적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인민의 정권인 북조선인민회의와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이름으로서 해방된 조선인민에게 뜨거운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오늘 애국적 조선인민의 이름으로서 우리 조국의 장래 영광과 융성을 축복합니다. 나는 오늘 해방된 민족이 가지는 한없는 열정으로써 우리들의 해방자 스탈린 대원수와 그의 영웅적 쏘련군에게 전 민족적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오늘 조선인민의 이름으로써 우리의 영명한 영도자 김일성 위원장의 건강을 축복합니다. (pp. 281~282)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모든 정열과 승리의 자랑을 다 하며, 우리들의 명절 8·15를 경축합니다. 오늘 우리 북조선 인민들은 우리들의 민족적 명절을 축하하기에 충분한 건설과 승리를 쟁취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오늘 투쟁과 승리 속에서, 건설과 영광 속에서, 우리들의 명절 8·15를 경축합니다. 우리들이 지난 두 해 동안 해방된 민족이 가지는 거대한 전국 열성으로 투쟁하여 온 결과는 우리 북조선을 조국의 민주 토대로 하였으며 조선 민족의 행복의 성벽을 구축하였으며 조선 민족의 우수성을 세계에 시위하였읍니다. 존경하는 노동자·농민·사무원 여러분! 조국애에 불타는 동포 여러분! 우리들이 조국의 운명과 민족의 행복을 등에 지고 지난 두 해 동안 모든 난관과 반동파의 발악을 타파하면서 애국적으로 건설한 諸 민주개혁의 성과는 우리 민족 대대손손이 영원히 잊지 못할 찬란한 금자탑으로 되었읍니다. 우리들은 오늘 우리 조국의 역사를 창건하는 영광스럽고도 고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그 사명을 민족과 조국 앞에 책임 있게 수행하는 역사의 주인들입니다. 지금 북조선 방방곡곡의 직장과 농촌·어촌에서 전개되고 있는 애국적 증산운동은 곧 우리들의 조국의 역사를 창건하는 위대한 과업을 승리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 우리들의 찬란한 승리를 시위하

는 자리입니다.(pp. 282~283)

여러분! 우리들의 승리를 시위합시다. 영예의 승리자는 우리들입니다. 북조선은 승리하였고 북조선은 건설하였읍니다. 북조선은 다시 승리할 것이고 북조선은 더욱 건설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같이 8·15 해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국의 남부는 어떠합니까? 남조선인민은 일본제국주의 시대와 같이 餓死와 학살과 착취와 멸망의 구렁에서 신음하고 있읍니다. 남조선은 도살장이 되었으며 테러의 무대로 되었읍니다. 우리 조국의 남부는 친일분자와 민족반역자들의 소굴로 변하였읍니다. 여러분! 8·15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는 두 해 동안에 우리 조국의 남북은 완전히 별개의 사회로 변하였읍니다. 하나는 광명과 자유와 건설의 민주북조선이요 하나는 암흑과 학살과 파괴의 병든 남조선입니다. 만일에 오늘 우리 북조선이 없었다면 우리 조국은 또 다시 망국의 슬픈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민족의 원쑤 우리 조국의 放火者 김구·이승만 및 그 卒徒들의 매국노적 죄악을 폭로하고 분쇄하여야 하겠읍니다. 여러분, 민족의 원쑤 매국노 살인범 김구·이승만 및 그 졸도들을 타도합시다. 이들을 타도함이 없이는 우리 조국의 민주 독립을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늘까지 최대의 애국적 열성으로 쏘미공동위원회 사업을 원조하였으며 쏘련대표단이 조선인민의 진정한 의사를 하루 속히 실현시키기 위하여 성의 있는 노력을 다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임시정부가 수립되지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읍니까? 그 원인은 오직 남조선 반동파들의 음모에 있는 것입니다.(pp. 283~285)

조국의 민주 독립을 위하여 애국적으로 투쟁하는 여러분! 8·15 해방 2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들은 더 일층 반동파 타도에 총궐기합시다. 우리들의 단결과 우리들의 건설은 반드시 반동파를 소탕하고 민주 조국의 완전한 독립에 성공할 것입니다.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고 민족자립경제를 확립하는 길이 곧 쏘미공동위원회를 협조하는 길이며 조국의 완전한 자

주적 독립을 촉진시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들이 투쟁의 결의를 더욱 높이는 날입니다. 오늘은 다시 새로운 승리를 약속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더 한층 건설을 향하여, 더 한층 승리를 위하여, 전 인민이 궐기합시다. 김일성 위원장의 영명한 지도를 받들어 조국 건설에 매진합시다. 이것이 해방된 북조선 인민들이 민족적 명절을 축하하는 길입니다. (pp. 285~286)

〈부록 15〉 4국 외상회의에 관한 미국무성 제안에 대한 몰로토프 소련 외상의 회한

나는 지난 8월 26일자 로베트씨의 서한의 접수를 확인합니다. 이와 동시에 나는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에 입각하여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그 원조방책에 대한 예비심의가 현재 북조선 소련군사령부 대표와 남조선 미군사령부 대표로 구성된 공동위원회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귀하의 주의를 환기할 필요를 인정하는 바입니다. 모스크바결정에 의하여 공동위원회에서 작성된 제안은 그 최후 결정에 앞서 영국과 중국을 포함한 4개국 정부에 조회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영국과 중국 정부는 또한 조선에 대한 4개국 후견제에 관한 합의를 보기 위하여 조선인민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독립국가의 실현을 위한 원조 후견제 방책에 관한 쏘미공동위원회의 제안을 쏘미정부와 공동으로 참가, 심의할 것입니다. (pp. 286~287)

공동위원회의 사명은 더욱 말할 것 없이 조선 전체를 위한 한 개의 민주주의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원조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점에 있어서 공동위원회의 성과는 적으나, 이러한 상태는, 지난 번에 귀하에게 보낸 나의 서한 중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주로 공동위원회가 조선의 민주주의적 정당 및 사회단체들과 협의하는 문제에 있어서 미측 대표단이 취한 태도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만일 진정한 민주주의 정부를 조선에 수립

하기 위해 미측 대표단이 당연히 베풀어야 할 의견을 피력했더라면 공동위원회의 사업은 좀 더 유효했을 것이며 그 사명은 달성될 수 있었고, 로베트씨의 서한 중에 지적된 바와 같이 공동위원회의 사업은 정돈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쏘련 대표단은 공동위원회 내부에서 일어난 사태를 수습하고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를 수립하는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조선의 민주적 諸정당 및 사회단체와의 구두협의를 취소하라는 미국 대표단의 제안에 동의를 표하고 지난 8월 27일 안으로 조선의 민주적 정당 및 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된 전조선임시인민회의라는 자문기관을 창설하자는 새 제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의견에 의하면, 이 제안은 공동위원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곤란을 일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미국 대표단의 지지를 마땅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또 쏘련 대표단이 제안한 방책을 성공적으로 실시하려면 그것은 오직 민주적 정당 및 사회단체들의 활동의 자유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토대로 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것을 부언할 필요를 느끼는 바입니다. 현재 남조선의 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단체 대표들은 체포를 포함한 기타의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민주주의 및 법률의 원칙과 조선에 대한 쏘미양국 정부의 책임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pp. 287~288)

쏘련 대표단이 미국 대표단의 제안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요지로 공동위원회 쏘련 대표단의 태도에 대해 언급한 로베트씨 서한 중의 주장은 전혀 지지할 수 없으므로 이것에 대해 언급할 필요를 나는 인정하지 않읍니다. 이와 동시에, 회의의 장소와 일자까지 지정하고 본 문제의 토의에 참가하도록 영국과 중국 양 정부에 대하여 초청장을 발송한 귀하의 일방적 행동에 대하여 나는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공동위원회가 상호 합의하여 완전히 타당한 제안을 작성할 모든 가능성이 결코 전부 소멸된 것이 아닌 이상, 쏘련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의 수립 문제를 4개국 회의에 附議하자는 귀하의 제안은 부적당한 것

으로 인정합니다. 로베트씨 제안에 제시된 조선에 관한 미국의 각 제안도 역시 수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조선 민주주의임시정부라는, 비록 과도적이기는 하나, 단일적인 권력 기관을 가급적 속히 수립하는 것이 급무인데 반하여, 귀하의 서한에 포함된 제안은 남북조선에 별개의 임시 입법회의를 설치하는 것인 만큼 이것은 조선의 분열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야 말 것입니다. 미국의 제안은 현재 2개 지대로 분할되어 있는 조선사태를 종식시키지 않고 그 반대로 이러한 異常事態를 해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경우에 당하여 이것을 영구화시키는 것입니다. 조선문제를 4개국 대표의 공동회의에서 토의하자는 미국의 이 안은 조선에 관한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에서 유리된 것임을 나는 명백히 지적함과 동시에 또 이상과 같은 견해에 따라서 쏘련정부는 로베트씨 서한 중에 제기되어 있는 제안할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서한의 복사를 영국과 중국 양 정부에게 발송하는 바입니다. (pp. 288~289)

모스크바 8일 타스발 북조선통신

〈부록 16〉 스띠꼬브대장의 식사

쏘미공동위원회 명의로 나는 북조선에 소재하는 민주주의 諸 정당과 사회단체의 대표 여러분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모인 것은 조선을 독립국가로 재건하는 또 한 면의 과업에 착수하려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위대한 사업을 수행하여 그 결과로 강력하고 嚴嚴한 민주주의적이고 또한 유구한 역사를 가진 이 문화민족에게 담당한 정치기관이 되는 국가를 수립하려 함에 있읍니다. 苛重한 일본제국주의 기반 아래 신음하던 조선민족은 수십여 성상 동안 자유와 독립을 회복할 날을 어느 때든지 잊지 않았읍니다. 연합국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 기회는 끝끝내 왔읍니다. 무릇 이 연합국은 장기간 격렬한 전쟁을 하여 동서진영에서 결정적으로 침략국들을 패퇴시켰읍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조선인민은, 오랫 동안

식민지적 노예의 온갖 고통과 모욕을 경험한 조선인민은 지금에야 영원히 일본통치의 기반에서 해방되었읍니다.

1945년 12월 쏘련방 북미합중국 및 대영제국 3외상 모스크바회의 때에 조선민족에게 그 민족적 부흥·소생의 명료한 소망의 길을 열어 준 역사적 결의가 성취되었읍니다. 쏘련방 북미합중국 대영제국 그리고 나중에 중화민국이 가입한 열강은 이 결의에서 조선을 독립국가로 재건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조선을 발전시킬 諸 조건을 창설하며 또한 장기에 긍한 일제의 조선통치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참혹한 결과를 가급적 최단시일 내에 숙청할 안을 작성하였읍니다. 모스크바 결정에 의하면, 그 업무의 첫 계단은 조선민주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며 임시정부는 조선의 산업·운수·농업발달·조선민족문화 등등을 발전시킴에 관한 필요한 방책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모스크바결의에서 제정된 것과 같이 조선의 민주적 諸 정당 및 사회단체들이 광범히 참가하여 정부를 수립하면 그것은 조선을 정치적으로 통합하게 할 것이며 또한 그것은 외국간섭을 받지 않는 민주주의적 자주독립국가 창설을 지향하는 가장 중대한 일보를 만들 것입니다. 공동위원회 과업의 현재 계단은 이것의 달성을 전심으로 함에 있읍니다. 이 최초의 계단이 완성되면 공동위원회는 수립될 민주주의임시정부와 민주주의 諸 정당 및 사회단체와 협동하여 조선인민의 정치·경제·사회 발전을 원조하며 민주주의자주정부를 발달시키며 따라서 조선의 국가독립을 달성하는 방책의 강구에 착수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 회합은 조선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방도를 제정한 모스크바결의 제2절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대한 일보를 標하는 것입니다. 이 회합은 공동위원회가 조선의 민주 諸 정당과 사회단체의 지도자 諸氏와 구두협의에 향하는 정식의 제일보입니다. 임시정부 수립에 있어서 인민의 呼聲을 최고로 참작할 전적으로 위에 말씀한 협의는 가장 좋은 민주주의 전통에 기인하여 실행할 것입니다. 인민의 요망은 정당 및 단체를 통하여 표현되므로 각 지명된 대표 諸氏에게 부과된 업무의 중대성과 성실성은 막

대합니다.

공동위원회의 의도는 협의를 통하여 (1) 인민이 요망하고 또한 조선인민의 利害에 대한 관심에 최선으로 응답하는 정부를 발견·결성하며, (2) 그러한 임시정부가 또한 인민이 요망하는 (i) 민주주의적 개혁의 실시 (ii) 자주독립적이고 민주적인 국가로서의 조선 부흥 (iii) 조선의 인민경제와 인민문화의 발전 등등을 보장할 정부를 수립하도록 관계열강들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 과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는 조선 인민의 건적인 원조를 요청하며 공동위원회에 각 정당 및 사회단체의 견해를 대변하신 諸位의 滿腔的 협력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임시정부의 구성에 관해서는 이 곳에 참가하신 여러 정당이 각양각색의 정견을 가지실 것은 불가피한 사실입니다. 조선인민 전체가 독립 달성을 요망하고 현 세계에 있어서 조선이 적당한 장소를 차지하자면 민주주의적인 사회·경제개혁을 시행하여야 하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반적 동의가 있으나 이 목적을 달성하는 정책 및 방도에 있어서는 자연히 의견이 不一합니다. 그러나 의견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 그것이 공동위원회 업무에 있어서의 不調和 또는 비협조의 導因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pp. 66~69)

협의의 목적을 위하여 공동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 및 지방정권기관의 구성 및 조직 원리 그리고 그 정부의 정강에 관한 자문서를 작성하여 공포하였읍니다. 이 자문은 조선인민에게 지극히 중대한 광범위의 문제를 포함하였읍니다. 공동위원회는 또한 조선의 민주적 정당 및 사회단체와 협의하는 규정을 작성하여 발표하였읍니다. 이 협의 규정에 의하면 선언서에 서명·날인한 조선의 민주 諸 정당 및 사회단체는 조선민주임시정부의 구성에 관한 견해를 서면 및 구두로 제출·발표하도록 요청되어 있읍니다. 공동으로 작성된 협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 또는 단체의 영향력을 참작하여 그 員數에 의해 후일 지명될 정당 및 사회단체의 대표 諸氏는 협의 및 共委의 건의서 작성에 원조하도록 초청될 것입니다.

우리는 속히 구두협의를 시작하겠읍니다. 대단히 많은 정당과 사회단체

가 협의를 요청한 까닭으로 공동위원회로서는 전체적으로 각 대표와 협의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소분과위원회를 설정하여 공동위원회의 지시와 감독 아래 협의사무를 이행하겠읍니다. 조선민주임시정부에 관한 건의안 작성을 너무 지연시키지 않을 목적으로, 구두협의는 제출된 자문해답에 관한 필요한 해석 또는 부연을 특히 휘급하겠읍니다. 관계되시는 분에게 후일 발표될 시간표에 의하여, 소분과위원회는 각 정당 또는 사회단체의 대표 諸氏와 협의할 것입니다. 구두협의에 초청되실 분에게는 그 시간과 장소를 예고하겠읍니다. 분과위원회와 공동위원회는 구두협의의 결과를 충분히 참작·연구하겠읍니다.

공동위원회는 조선의 민주적정당 및 사회단체에게 자신들의 책임감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 과업에 착수하는 자문의 내용을 모든 인민들에게 널리 설명·해석하며 조선인민의 공론과 숙망을 충실히 반영하는 의견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기를 중심으로 원하는 바입니다. 이 중대한 문제 해결에 際하여 개인적 요망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조선인민의 이해는 각 정당과 지도자의 이해보다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본 공동위원회는 또 조선의 언론기관 대표 諸氏에게 호소합니다. 諸位는 조선사회의 이 역사적 시일에 際하여 위원회의 결의를 조선의 민중에게 천명하는 중대한 과업을 실행하며, 조선의 민주적 諸 정당 및 사회단체들이 공동위원회에 중심으로 협력하여 공동위원회에 조선민주임시정부의 조직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 사실을 해내외에 널리 설명·보도하는 과업을 조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본 공동위원회는 이 곳에 대표를 파견하고 모스크바결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서약을 성명한 민주적 諸 정당 및 사회단체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각 방면으로 원조·편달하여 조선인민에 대한 각자의 책임을 완수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조국의 재탄생을 위해 공헌하는 것은 자랑할 만한 일대 책임입니다. 공동위원회 일동은 당 또는 단체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명예를 여러분이 존중히 생각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쏘미공동위원회는 여러분 대표 諸位와 전 조선인민에게 본 위원회는 조선에 관한 모스크바결의 수행에 전력을 다 하며 우리의 제일의 의무인 조선임시정부의 수립을 가급적 최단기 안에 전력을 다하여 수행할 것임을 확언하는 바입니다. 이번 회의는 가장 중대하고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공동위원회 일동은 조선인과 쏘련인 및 미국인이 서로 우호적으로 협동함으로써 조선민주임시정부의 수립에 관한 복잡다단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게 될 것을 충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pp. 69~72)

〈英文要約〉

North Korean-Soviet Russian Relations During the Soviet Occupation of North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Mutual Perceptions of the Two Sides (I)*

Kim, Hak-joon

This paper is an attempt to explain North Korean-Soviet Russian relations during the Soviet occupation of North Korea. The period under study is between August 1945, when the Soviet troops entered North Korea and December 1948, when the Soviets completed their withdrawal.

There are a good number of works on this subject; however, most of them, particularly those published in South Korea, were ideologically biased. In other words, they described North Korea as a mere puppet of the Soviet occupation forces and Kim Il-song as a mere protégé of the Soviet occupation forces.

Professor Suh Dae-sook's book, *The Korean Communist Movement*, demonstrated that those views were wrong. While admitting that Kim Il-song was supported by the Soviet occupation forces, Professor Suh stressed that Kim Il-song's somewhat independent efforts, including his political maneuvering, and his skill should be seriously considered in evaluating the process of his rise to power. Professors Robert A. Scalapino and Lee Chong-sik, in their *Communism in Korea*, also sug-

* This paper was written under a visiting scholar's grant provided by the Kennan Institute for Advanced Russian Studies, Woodrow Wilson Center, in the summer of 1984.

gested many new interpretations of North Korean-Soviet Russian relations during the Soviet occupation of North Korea.

In recent years, many new data have been revealed. The most important are the seized North Korean Records Preserved at the Washington Records Center at Suitland, Maryland, U.S.A. These documents, captured by the American troops during the Korean War, contain massive new information and data on the subject under study. According to Professor Suh Dae-sook, those records are "a gold mine" for the study of all aspects of North Korea.

The present writer read some parts of those records. Based on the reading, he attempts, in this article, to show some new aspects of North Korean-Soviet Russian relations under the occupation. In part I, the North Korean perception of the Soviet Union and the Soviet troops is described. Central to the North Korean perception of the Soviet Union is that the Soviet Union represents the future wave of humanity. The North Korean Communist leadership fully admitted that North Korea was liberated not by Kim Il-song's "anti-Japanese guerrilla" but by the Soviet troops.